



# 어른들의 피로회복제 벤포벨 S

육체피로 | 체력저하 | 신경통

만 19세 이상  
 및 성인 복용



신경통



육체피로



체력저하



관절통



눈의 피로



# HEADLINE NEWS

## 6월 '유연계약'·8월 '제네릭 약가 인하'... 생존 공식 바뀌는 제약업계

### 혁신형·수급안정 선도기업엔 파격 가산... R&D·필수의약품 중심 생태계 전면 재편

오는 6월 1일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와 8월 1일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이 확정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거대한 격랑에 휩싸였다. 제네릭 약가의 대폭 인하와 진입 장벽 상향 등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 연타가 예고된 가운데, 하반기 실적 방어를 위한 업계의 선행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연타는 단순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넘어, 수익 구조를 해체하고 신약 개발과 필수 의약품 공급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내달 1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약가유연계약제는 외부 고시 약가와 실제 건강보험 청구·지급 시 적용되는 실질 약가를 이원화하는 제도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환자의 편의성 제고다. 현행 약가 환급제(위험분담제) 체제에서는 환자가 고시된 상한금액으로 우선 결제한 뒤 차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초기 비용 부담이 컸다.

약가유연계약제가 도입되면 심사평가원이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요양기관에 안내하여, 청구 단계에서부터 이를 기준으로 약제 단가를 산정·수납하게 되므로 환자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약국 등의 구입약가 역시 분기별 가중 평균가격이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적용 대상은 신약, 자료보호의약품, 대조약,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회약품, 개량신약,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었다. 다만, 현재 위험분담제 조건이 부과되어 이행 중인 약제는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업계 입장에서는 특히 만료 오리지널이나 개량신약까지 적용 폭이 넓어지면서, 약가 인하 방어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대정부 약가 협상 전략이 한층 다변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은 8월 1일 시행을 앞둔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핵심은 '제네릭 약가의 대폭 인하'와 '과다품목 진입 장벽 상향'이다.

가장 뼈아픈 조치는 제네릭 기본 산정률 하향이다.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였던 최고 산정률이 45%로 일

괄 조정된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및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이라는 제네릭 품질관리 기준 요건을 1개만 충족할 경우 36%, 모두 미충족할 경우 29%까지 약가가 추락하게 된다. 여기에 계단식 약가인하(다품목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100% 산정 기준선이 기존 19개에서 '최초 2개 이상 12개 이하'로 대폭 좁혀졌다.

13개 제품 이상 등재 시부터는 기등재 최저가와 산정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인하되며, 신청제품과 기존 등재 품목 합이 14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기간 경과



### 가산 혜택 세부안 감감무소식에 '혼란' 가중... 연락처 위한 세밀한 후속 조치 절실

후 무조건 산정금액의 85%로 대폭 깎이게 된다. 이른바 '위탁생산(CMO)을 통한 문지마식 후발 진입'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또 품목 양도·양수 시 상속이나 합병을 제외하고 단순 지위 승계를 통해 삭제된 제품과 동일제제를 다시 등재할 경우, 삭제된 제품의 기존 상한액과 새로운 산정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되어 고가 제네릭 시장을 우회 공략하던 전략이 전면 차단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제네릭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네릭은 단순히 특허 만료 약을 베낀 제품이 아니다.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체하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기약 대란에서 증명됐듯, 국내 제약사들의 탄탄한 제네릭 자체 생산 역량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안보와 의약품 수급 안정화의 핵심 축이다.

무엇보다 제네릭은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천문학적 비용과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제네릭 판매로 창출된 안정적인 수익은 R&D 투자의 핵심 '시드머니'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네릭으로 번 수익을 쪼개 신약 파이

프라인 임상에 투자하며 버티고 있는데, 당장 주력 품목의 약가가 떨어지면 R&D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며 "산업 체질 개선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다. 요건을 충족한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60% 수준의 약가 가산을 부여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및 '수급안정 선도기업'에는 국내 생산 시 최대 4년(1+3년)간 50%의 가산을 부여하며,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은 물론 요건을 충족하는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에도 68%의 파격적 우대율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시행 시점 불일치에서 오는 제도적 공백이다. 약가 인하 기전과 신규 제네릭 산정률 인하는 8월 1일부터 당장 작동하는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세부 지정이나 기 등재 의약품의 재평가 논의 등은 제도 시행 일정과 맞물려 있어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가 8월 시행되면서 정작 이를 방어할 우대 조건 인 증은 언제 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 앞뒤가 맞지 않아 하반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며, 사업 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 김홍식 기자 kimhs423@yakup.com |



프리필드시린지 검사부터 완제품 패키징까지  
논스톱 공정 솔루션으로 해결

Smart Sustainable Solutions for Prefilled Syringes

**Human Machine Interface**



HMI가 집적되어 데이터무결성 생산수율을 손쉽게 모니터링

**Validation Solutions**

- FAT&SAT: Factory and Site Acceptance Test
- IQ: Ensures equipment is installed correctly
- OQ: Confirms consistent performance over time

**Compliance Guidance**

- GMP: All equipment are complied with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21 CFR PART 11: Data Integrity &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 GAMP 5: Computer System Validation
- ISO13485: Consistent quality throughout the entire lifecycle of medical devices

비전 이물검사  
Visual Inspection

라벨링  
Labeling

그립로드 체결  
Grip-Rod Ass'y

블리스터  
Blister

카토너  
Cartoner

# 식약처 195명 채용 비결은 '숏폼'... 정부기관 홍보 공식 바꿨다

## 현진우 대변인, 채용추진단 총괄기획팀장 맡아 프로젝트 진두지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대 최대 규모인 195명의 의료제품 허가·심사 인력 채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기존 정부기관과는 다른 '파격 SNS 홍보 전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식약처 대변인으로 재직 중인 현진우 대변인이 당시 우수인재채용추진단 총괄기획팀장을 맡아 채용 프로젝트 전반을 이끌며 직접 홍보영상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펼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신약·바이오시밀러·희귀 의약품·AI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95명의 신규 공무원을 임용했다. 일반직 19명, 연구직 176명 규모로, 신규 인력은 향후 신약 품질심사와 바이오시밀러 안전성·유효성 평가, 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의료기기 검증 등 핵심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실제 이번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과학 기반 허가·심사 체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채용 과정에서 업계와 공직 사회 안팎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끈 것은 단연 '홍보 방식'이었다. 식약처 채용추진단은 디지털소통팀과 협력해 기존의 정적인 채용 공고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브이로그, AI 기반 영상 등 젊은 세대 친화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했다.

대표 사례는 한국철도공사 인기 인플루언서 '미스기관사' 강하영 대리와 협업한



했다. 195명 모집에 약 200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리며 식약처 채용 역사상 이례적인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정부기관의 새로운 인재 확보 전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오·AI·첨단의료기기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경직된 공공기관 이미지를 벗어나 보다 친근하고 유연한 소통 방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AI 기반 허가·심사

## 미스기관사·AI 쇼츠·브이로그까지... 정부기관 채용 홍보 '파격 변신' 29만 조회·12대 1 경쟁률 기록... 바이오 심사인력 확보 본격화

홍보 영상이다. 정부기관 간 협업 형태로 제작된 해당 영상은 공개 이후 72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현직 공무원의 실제 하루 일과를 담은 'K공무원 3분할 브이로그' 영상은 193만 조회수를 넘기며 사실상 식약처 채용 홍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식약처 내부 댄스동호회가 직접 출연한 홍보 영상 역시 45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선배 공무원 인터뷰 형식으로 제작된 캐치 TV 협업 영상도 10만 조회수를 달성했다.

특히 식약처 캐릭터 '지킬박사'를 활용한 AI 기반 채용 홍보 영상은 기존 정부기관 채용 홍보에서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았다. 해당 영상은 59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었다.

식약처는 단순히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보도자료 배포, 라디오 홍보, 온라인 커

뮤니티 연계, 유관단체 협조 요청 등 다양한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며 채용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식약처 직원들이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현직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소개하고, 댄스동아리와 브이로그 콘텐츠까지 제작한 것은 기존 정부기관 홍보 방식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 트렌드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 공고 전달이 아니라 조직문화, 실제 업무환경, 현직자 경험 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방식이 MZ세대 지원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실제 성과도 숫자로 확인됐다. 식약처 채용공고 조회수는 총 29만 건을 기록했고, 최종 경쟁률은 약 12대 1 수준을 달성

체계 도입,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혁신, 민관 협력 플랫폼 확대 등 규제과학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채용 역시 단순 증원이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사역량 확대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는 신규 임용 인력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국제 가이드라인, 최신 규제 동향 등을 포함한 전문 교육을 진행한 뒤 현장에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진우 대변인은 지난 3월 16일 식약처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대외 소통 업무를 맡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채용 프로젝트가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 식약처 조직문화와 대국민 소통 방식 변화까지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최윤수 기자 jiyisc0229@yakup.com |

**Daewon** 대원제약 건강기능식품

## 관절 연골 건강의 킹! 콘드로이친 킹



**대원제약 건강기능식품 '콘드로이친 킹 1200'**

- 대원제약 최초의 개별인정 콘드로이친황산염 (CHC사업부 건강기능식품/2026년 3월 기준)
- 기능성 원료인 콘드로이친황산염 인체적용시험결과
  - 1) 최단기간\* 30일후 통증개선(WOMAC, VAS, LFI)
  - 2) 염증관련인자 3가지 개선 확인(TNF-α, COX-2, CRP)
  - 3) 최초, 유일(2026년 3월 기준) 연골분해지표 COMP 개선 확인

\* 콘드로이친황산염 원료 중 한시점(2026년 5월) 기준

• 시험명 :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clinical study for the comparative evaluation of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chondroitin sulfate in improving knee joint health in adult subjects with mild osteoarthritis

- 대상자 : 만 4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KL grade(관절염 등급) 1-2등급인 남녀 137명
- 시험기간 : 90일
- 섭취 방법 : 1일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콘드로이친 황산염 1200 mg/일)
- 인체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주문상담 080-606-2000    제조원 : 대원헬스케어(주) 2공장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원 : 대원제약(주)



# 임팩타민, 비타민B 맞춤함량을 설계하다

한 알 속 균형까지 생각한 비타민



광고 심의필 번호 2023-1687-0033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 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지금 가까운 약국에서 만나요!



# “약국이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 대한약사회, 건강증진위 신설

## ‘약국에서 시작되는 도움’ 사업 추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

### 노수진 이사 “전국 2만5000개 약국, 지역사회 복지 허브 될 수 있어”

대한약사회가 건강증진위원회를 신설하고 약국 기반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약국의 공공·복지 역할 확대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열린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건강증진위원회 신설 및 건강증진 이사 인준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약국 기반 위기 가구 발굴 사업’ 업무협약 추진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장보현 정책이사를 대외협력이사(정책이사 겸직)로, 정동만 구로구 약사회 총무부회장을 건강증진이사로 각각 보선·인준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건강증진위원회 신설 배경에 대해 “기존에는

정책위원회나 여약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서 나눠 수행하던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증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증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약국과 약사가 지역사회 건강·복지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국 2만5000개 약국이 국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보건의로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복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만 신임 건강증진이사에 대해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세이프약국 관련 의제와 사업 개발

경험도 많다”며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신설된 건강증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약국에서 시작되는 도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약국을 통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공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 이사는 “유한재단이 과거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처럼 위기가구 발굴 사업에도 협력하게 될 예정”이라며 “건강증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약국에서 위기가



권영희 대한약사회회장(왼쪽)과 정동만 신임 건강증진이사.

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관련 홍보와 참여 약사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유한재단이 후원한다. |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

# 대한한약사회 “복지부, 직능 눈치보기식 유권해석 중단해야”

## 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회신에 반발... “모호한 표현, 직능 갈등·사회 혼란 초래”

### “현행 약사법상 판매 권한은 약국개설자 공통 영역... 기존 정부 입장과도 배치”



대한한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회신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모호한 유권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은 직능 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전지역 보건소 질의에 따라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회신에서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표현도 함께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이번 회신은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

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에게 부여된 공통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3조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50조는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와 한약사의 공통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외탕전실 제도 도입 등으로 한약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도 합법적으로 부여된 업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하연 기자 |

**눈노화+눈피로+눈건강**  
**3중 솔루션**

**안국약품**  
눈노화와 눈피로 케어를 동시에  
**토비콤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헤마토크루스추출물,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아연,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건강기능식품  
4.5g(150mg x 30캡슐)

**토비콤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 ★ 눈노화케어 핵심 원료, 루테인지아잔틴 함유 (특히 저온공법 추출)
- ★ 눈피로케어 핵심 원료, 아스타잔틴 (헤마토크루스추출물) 함유 (Algamo사의 초임계 추출 아스타잔틴)
- ★ 비타민&미네랄 7종으로 챙기는 종합 활력까지
- ★ 10mm 초소형 식물성 캡슐로 편안한 목넘김

안국약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스토어가기

ARS 주문전화 1666-0903

제조원 : ㈜한풍네이처팜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원 : 안국약품㈜

# PHARM INDUSTRY

##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강행... '수가 비율'은 상대가치 개편 연동

복지부, “철회 및 번복 여지 없다” 빼기... 심평원·건보공단이 직접 ‘분리지급’

유정민 과장 “본질은 필수의료 강화 균형수가... 6월말 확정 목표 의견 수렴”

의료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시행 연기나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제도가 원안대로 올 하반기 강행된다.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 등) 간의 수가(보상) 비율 결정은 단순히 개별 단체 간의 '파이 나누기' 협상을 넘어, 전체 의료행위의 보상 수준을 재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강력하게 연동되어 확정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체검사 수가 개편 및 청구·지급 방식 개선 방향을 확고히 했다.

현재 의료 현장의 검체검사 비용 청구 구조는 검사를 의뢰하는 위탁기관(병·의원)이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검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후 위탁기관이 총액을 지급받은 뒤 수탁기관에 일정 비용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나누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 도입을 못 박은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자금 흐름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심평원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지급할 때, 검사료 자체는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직접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 고시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면서, 청구 및 지급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점을 의료계에 이미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중인 제도 형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자 청구하는 '분리청구' 방식이 아니라, 청구는 하되 지급액을 명확히 나누는

'분리지급'으로 간다”며 “현재 하반기에 제도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정 사항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료계와 검사 수탁업체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검체검사료를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하는 '보상 비율' 문제다. 당초 예상보다 이 비율 산정 작업이 길어지는 이유는 복지부가 이를 단순한 기관 간의 합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건강보험 전체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작업'과 맞물려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현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맞지만, 복지부 차원에서는 단순히 그 비율만 떼어내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검사료에 대한 상대가치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하는 시점과 제도를 시행하는 시점에 맞춰 위·수탁 기관의 몫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상대가치 개편 작업과 위·수탁 보상안 마련 작업을 동시에 연동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체 상대가치 조정 논의 시점과 연동되다 보니 상반기 내 논의 완료를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6월 말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제도와 비율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을 위한 심평원·건보공단의 시스템 등을 준비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실제 현장 시행 시점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분리지급 강행의 기저에는 정부의 최우선 보건의료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아



온 검체검사 등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기서 효율화된 재정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거시적인 목표다.

복지부 유정민 과장은 이번 개편의 본질이 '균형수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유 과장은 “수가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보상 수준의 균형을 맞춰 진찰, 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 마취와 같은 필수진료 부문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 “검체검사 역시 균형 있는 수가로 조정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적정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가 조정은 물론 위·수탁 구분 지급, 질 관리 체계 개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남은기간 동안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며 “빠르면 6월 말에 관련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홍식 기자 kimhs423@yakup.com |

## 신약 개발 정부 지원 '제약산업 성공불용자 제도' 기대감 ↑

R&D자금 일부 용자, 실패 시 감면-성공시 원리금 상환·특별부담금 납부  
국내 기업 대부분 기술개발 초기 단계 기술수출 비즈니스 모델  
입찰서 마감... 계약 후 12월 10일까지 연구 용역 진행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제약산업 성공불용자 제도 도입 연구 입찰서 제출이 마감되며, 이 제도와 연구용역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공불용자 연구용역은 나라장터를 통해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했으나 유찰 후 5월 7일 재공고돼 5월 18일까지 입찰 참가등록을 접수했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관과 5월 중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공불용자는 정부가 자금 일부를 용자에게 주되 사업으로 실패 시 용자금 감면, 성공시 기업의 원리금 상환 및 특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민간과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해 민간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한다.

실제 신약개발은 위험부담이 크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요구돼 민간 투자 공백이 발생한다. 특히 완제의약품 개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희박하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 중심에서 전주기 완주형 생태계로 전환이 이뤄지도록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제약산업 성공불용자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가 추진됐다.

주요 연구 내용은 제약산업 특성을 고려한 투자 병목 발생 구간 및 원인 규명, 정책 수요자 인터뷰 등을 통한 제

도 설계 기초자료 수집, 성과지표 체계 설정을 통한 제도 도입 시 경제적·산업적 효과 정량적·정성적 분석 추진, 제도 도입 시 부작용과 제도 실패 리스크 점검 등이다.

**'죽음 계곡' 넘어 신약개발 전주기 사이클 완주 생태계 조성 필요**

이 성공불용자 제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신약개발 어려움 때문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 개발에 1조원 이상 투입된다. 또 승인 확률도 5000~1만개 후보물질 중 1개 정도다. 임상단계에 들어간 후보물질 경우에도 임상1상에서 승인까지 성공률은 7.9%에 불과하고 기간은 평균 10.5년이 걸린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신약개발 등 성공 가능성 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업종에서도 성공불용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약 개발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달리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충분히 창 의력과 사업수행 역량만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익을 다 쏟아부어도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고, 기간도 예측할



수 없어신약 연구개발에 나서 완주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5월 4일, 딜로이트가 R&D 지출 상위 20개사 바이오제약 연구개발 생산성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개의 신약개발 비용은 26억7100만 달러로 전년(2024년 22억2900만 달러) 대비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개사 수익은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생산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외부 소싱 자산이 파이프라인 61%를 차지해 자체 연구개발보다 높았다.

다국적제약사보다 매출, 연구개발 등에서 크게 뒤처지는 국내 기업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내 신약개발 기업들 대부분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 선진국 도약을 위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신약개발 전주기 사이클을 완주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

# SPECIAL FEATURE

히트상품 소개

## 임상시험으로 효과가 입증된 반비틴크 성분 함유 고농축 자양강장제 호르반

### 구하기 힘든 약재만 사용... 임상시험에서 뛰어난 효과 입증 만성피로증후군 자각증상 뚜렷한 개선

호르반 내복액은 녹용(사슴의 어린뿔)의 유효성분인 루론딘, 살모사의 추출성분인 반비틴크,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로알젤리, 비타민B군 등의 영양소가 복합처방된 자양강장제로서, 루론딘은 30mg, 반비틴크는 100mg이 들어 있다. 호르반은 허약체질이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 병중·병후의 회복기 환자나 발열성·소모성 질환 및 갱년기 장애 환자에 효과가 높으며, 국내 대학병원에서의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 뛰어난 효과가 입증됐다.

녹용으로부터 추출한 유효성분인 루론딘과 살모사의 유효성분을 알코올로 추출하여 얻은 반비틴크, 로알젤리 등을 함유하고 있는 호르반 내복액의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임상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6주간 약물 투여 후 평가한 결과, 만성피로 증후군의 자각증상에 대해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유효율은 시험군(호르반 투여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84%, 48.6%로서 호르반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뚜렷한 개선을 나타냈다 (p=0.000).

따라서 만성피로 증후군의 개선에 이들 성분이 유효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경험적인 사용으로 이미 알려진 효능과 이전에 발표된 개개 성분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등과도 부합된다. 이 연구는 대상질환으로 설정한 만성피로 증후군이 상당부분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 내원 및 약물 투여에 따르는 플라시보 효과를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지는 하나, 시험군과 대조군을 이용한 이중 맹검 시험인만큼 루론딘, 반비틴크, 로알젤리 성분의 유효성이 충분히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 임상시험개요

1996년 10월 15일부터 1997년 8월 12일까지 아주대 학교병원 소화기센터에 내원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 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45명이 중도 탈락하여 최종 평가 환자는 시험군 100명, 대조군 105명이었다. 대상환자의 평균 나이는 44.8세였다.

####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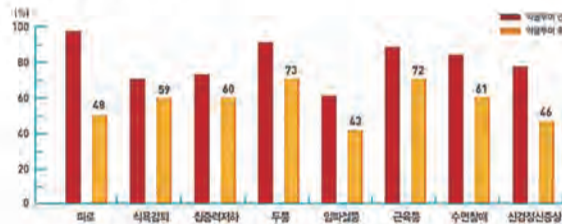
선정 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Simple randomization method에 의해 시험군 및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치료기간은 6주간이었으며, 치료기간동안 환자는 각 군별로, 시험약과 대조약을 각각 1회 1병씩, 1일 2회 아침과 저녁식사 30분 후 복용하였다. 또한 시험 약물의 효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약물은 치료기간 동안 투여하지 않았다.

피곤함 등을 느끼거나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미리 설

정한 12가지 자각증상의 유무 및 정도를 검사한 후, 약물 투여 2주, 4주 후 및 종료 후에 6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혈액검사, 혈액생화학검사, 요검사 등의 검사 항목에 대해서도 임상 시험 전과 종료 후에 측정하여 평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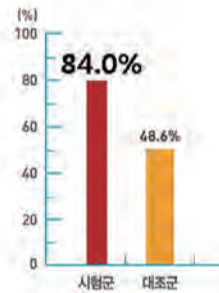
#### 결과

##### △자각증상의변화



##### △유효성평가

유효환자비율84.0%vs48.6%



##### △임상검사치의변화

시험군과 대조군의 약물 투여 완료 후 간효소나 기타 검사 결과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었으며, 간효소치가 투약 전 정상범위였던 환자들은 투약 후에도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 다만 투여 전 이미 경미하게 간효소치가 증가했던 환자들에게 투여 후 GOT, GPT의 증가가 있었으나,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예는 없었다.

##### △안전성평가

일반적으로 이들 성분은 민간에 널리 사용되면서 경구 투여에 의한 부작용은 많지 않은것으로 알려져있다. 투약을 중단한 환자 45명을 분석한 결과, 시험군에서 17명은 임의로 약을 중단하였고, 6명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뛰어서, 2명은 몸이 붓고 열이 올라 중단하였다.

그리고 1명은 본 약물 투여와는 상관없는 증상 때문에 중단 하였으며, 대조군의 경우 14명이 임의로 투여를 중단하였고, 3명은 두드러기로, 2명은 몸이 부어서, 1명은 가슴이 뛰는 증상 때문에 중단하였다. 나머지 205명은 특이할 만한 부작용 없이 전 과정을 수행하였다.



#### 호르반에 함유된 루론딘 약리작용

루론딘= 녹용으로부터 추출한 유효성분인 루론딘에는 녹용정(Harts horn salz), Glutin, Chondrin, Collagen, 인산칼슘, 단백질, 마그네슘, Oestron, Pantocrin 등이 함유되어 있다.

△강장, 감정작용: 흰쥐의 뇌, 간, 신장조직을 시험한 결과, 산소 소비량을 현저히 고조시키고, 체중증가, 혈액소·망상 적혈구 수의 급격한 증가 및 적혈구 신생이 촉진되었다. 또한 정력 감퇴, 임포텐스 및 성기능 감퇴 증상에 대해 활력 증강과 흥분 작용이 있어 무기력증에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

△강심작용: 심장의 활동 및 심장근육에 작용하여 심운동 및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며 혈압강하, 말초혈관 확장작용을 나타낸다.

△신경안정작용: 수면부족, 기억력 감퇴, 사고·집중력 저하시 두뇌의 피로회복을 촉진시키며 흥분 조절 효과가 있다.

#### 호르반에 함유된 반비틴크 약리작용

반비틴크= 살모사의 유효성분을 알코올로 추출하여 얻은 반비틴크는 팔미틴산, 스테아린산, 타우린,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 비타민B군 및 Citrovorum Factor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자양강장, 신진대사 촉진, 항염작용 등으로 신체허약, 만성피로, 소모성·발열성 질환 등에 사용되어 온 약이다.

△자양강장작용: 반비는 예로부터 만성 고질병 환자나 장기 투병으로 인해 허약해진 환자들에게 보신용 약제로 사용되어 왔다. 항시 피곤함을 느끼거나 만성권태, 무기력증, 병중·병후 환자나 체력 소모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용시키게 되면 뚜렷하게 원기가 회복됨을 알 수 있다. 쥐에게 대조군과의 비교 시험을 실시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시험군에서 현저한 체중 증가가 관찰 되었다.

△신진대사 촉진작용: 체내 조직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질병의 쾌유를 도와주며,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지속적 혈압강하작용: 반비틴크를 토끼의 귀정맥에 주사하였을 때 현저한 혈압강하작용이 나타나며 호흡을 증대시켜 산소 호흡량을 증가 시켰다.

△항염 및 배농작용: 오혈을 제거하며, 혈액을 생성시키는 효과가 있다. 항염 및 배농 작용이 있어 피부병이나 종창 치질 등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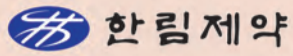
로알젤리=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어 여왕벌의 먹이가 되는 물질로 단백질, 유리 아미노산, 탄수화물 및 다량의 비타민B군을 함유하여 자양강장, 감정, 동맥경화 예방, 자율신경 조절작용 등을 가지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왔다.

#### 호르반 제품정보



- 효능효과: 자양강장, 육체피로, 병중·병후, 발열성·소모성질환, 식욕부진, 영양장애등의경우영양보급, 허약체질
- 용법/용량: 성인 1회 1병(30ml), 1일 1-2회 복용
- 주요성분: 1병 중 루론딘(녹용엑스) 30mg, 반비틴크100mg, 로알젤리 50mg, 엽산치아민 5mg, 인산리보플라빈나트륨 1mg, 엽산피리독신 3mg, 니코틴산아미드 10mg, 무수카페인 10mg, 아미노에칠살폰산 100mg
- 포장단위: 30mL X 30병

△제품문의: 02-3489-6114(hlcs@hanli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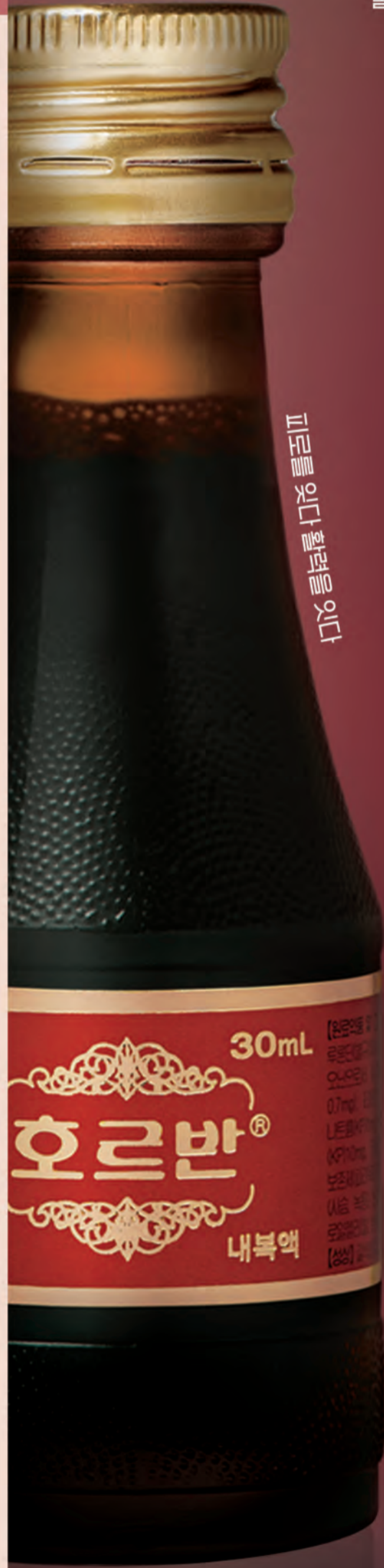
진한 자양 강장제 호르반

# 하루 기력 충전 호르반

## 호르반이 필요한 사람은?

- 출·퇴근에 지쳐 기력회복이 필요한 사람
- 식욕부진으로 늘 피로한 사람
- 피로회복이 필요한 사람

피로를 잊다 활력을 잇다



[용법·용량] 성인 1회 1병 (30ml), 1일 1~2회 [효능·효과] 자양강장, 육체피로, 병중, 병후, 발열성·소모성 질환, 식욕부진, 영양장애 등의 경우의 영양보급, 허약체질 제품문의 02) 3489-6114 [광고심의필: 2025-1787-0030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부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인스턴트 인마를 2배용량은 불만입니다. ※약국에 있습니다.



자양 강장제  
**호르반**

# “제네릭 캐시카우 모델 종말”... 약가인하發 제약업계 재편 본격화

## “향후 3년이 제약사 분수령”... M&A·사업 재편·글로벌화 가속 전망

약가인하 정책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가 향후 3년간 사업 구조 재편과 생존 전략 재정립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이큐비아(IQVIA) 천정우 부문장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산나이스-스즈켄 제휴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약가인하 상시화 시대, 국내 제약업계의 구조적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등이 시장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 부문장은 정부 약가정책 강화 배경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 확대와 제네릭 중심 시장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 과제가 됐고, 약가 통제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급여 등재 품목의 약 90%가 제네릭이고 청구비중 역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제네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부문장은 국내 제약사만이 아니라 다국적제약사(MNC) 역시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제네릭 비중이 높은 국내사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사와 MNC의 중장기 하락률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국내사는 제네릭 중심, MNC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중심으로 매출 하락 압박을



아이큐비아(IQVIA) 천정우 부문장.

### 국내사·MNC 모두 중장기 하락 압박... “이제는 생존 전략 고민할 시점” 포트폴리오 재편·R&D 강화·비용구조 최적화 제시

천 부문장은 국내 제약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약가 통제 강화로 성장 압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내 제약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6.6% 성장하며 약 37조651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과거 약가인하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 약 9% 수준이던 성장률과 비교하면 둔화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자체는 성장하지만 정책적 가격 통제로 상방 압력이 높고 있는 구조”라며 “고가 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출시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통합돌봄 확대

가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 부문장은 “제네릭 캐시카우 모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사업 구조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3년은 국내 제약산업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약가 정책이 작동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M&A뿐 아니라 생산·영업·코프로모션 등 통합 활동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대형사는 이를 기회로 설비 인수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사는 R&D 자산 우대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일부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대 기간 종료 이후에는 하락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형 제약사의 부담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천 부문장은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등재 제네릭 비중이 높아 약가인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대형사는 신규 제네릭과 포트폴리오 다변화, R&D 우대 정책 등을 통해 일부 방어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제 제약사들은 ‘생존 가능한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어떻게 앞서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천 부문장은 대응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세대 성장 축 강화 △생산·공급 역량 재배치 △영업 비용 구조 최적화 △글로벌 확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네릭 중심 기업들은 생존 품목을 중심으로 자원을 재배치하고, R&D 자산 우선순위 재조정과 비용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커머셜 모델 최적화와 해외 매출원 확보 역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

### 북산나이스-스즈켄, 제휴 10주년... “유통도 전략 파트너로”

아이큐비아·스즈켄·북산나이스, 산업 구조 변화 진단  
“공급망·영업·물류 협업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북산나이스와 스즈켄이 제휴 10주년을 맞아 약가인하와 시장 재편 속 제약-도매 협업 방향과 유통의 미래 역할을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북산나이스와 스즈켄은 2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제휴 10년의 경험으로 내다보는 제약-도매 파트너십의 미래’를 주제로 제휴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 변화와 약가인하 정책 영향, 일본 의약품 유통 사례, 제약-도매 협업 모델 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임태웅 북산나이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휴 10주년을 단순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제약산업과 유통업계가 직면한 변화와 미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제약산업은 약가와 시장 구조 변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적 관점에서 국내 의약산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제조업보다 마케팅과 유통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제약사들에게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북산나이스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천정우 아이큐비아 부문장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 가능성을 진단했다.

천 부문장은 “제네릭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향후 3년은 국내 제약사들에게 사업 구조 재편과 생존 전략 수립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노 시게루 스즈켄 사장은 일본 의약품 시장과 제약-도매 협업 사례를 소개하며 유통의 역할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사노 사장은 “약가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제약사 역시 기존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매 역시 단순 유통을 넘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즈켄그룹의 핵심 전략으로 ‘가시화·연결·변화’를 제시하며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도 소개했다.

아사노 사장은 “의료기관과 의료진, 공급망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의약품 도매는 단순 배송이 아니라 제약사와 함께 안정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욱 북산나이스 사장은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약-도매 협업 방안’



임태웅 북산나이스 회장.

발표를 통해 국내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과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사장은 “지금까지 국내 도매는 단순 납품업체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규모 약가인하와 시장 변화 속에서 제약사와 도매 모두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는 연구개발과 생산 같은 본업에 집중하고, 도매는 유통과 운영 효율화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성 확대, 업무 단순화를 통해 제약사의 수익성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4000여개 도매가 존재하고 상위 10개 도매 점유율도 40%를 넘지 못해 유통 구조가 다양하다”며 “유통 채널 단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전하연 기자 |

## GMP 공장 건축 전문회사

- GMP 크린룸 (KGMP, CGMP, KVGMP, BGMP, GMP, HACCP)
- 첨단공장 (반도체, 연구소, 실험실 등 ICR, BCR 크린룸) 및 물류시스템

T. 031-666-8322       주식회사 현 승

F. 031-666-8324    주식회사 현승종합건설

www.e-hseng.com

# AI는 이제 '판단'만 하지 않습니다 D3319, 의료 실행의 새로운 기준

AI 판단을 실제 의료 행동과 안전 제어까지 연결하는 실행 운영체제

<b>의료 AI 산업의 구조적 한계</b>	<b>불만 사고 · 이탈</b> 처방 이류 경로로 위험 발생	<b>실행 추적 불가</b> 실제 복약 · 치료 여부 확인 어려움	<b>데이터 단절</b> 병원 · 약국 · 보험 · 제약 데이터 연결 부족	<b>AI 오판 위험</b> 검증 · 책임 · 추적 체계 부재	<b>책임 소재 불명확</b>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 어려움
-------------------------	--------------------------------------	---	--	---------------------------------------	---------------------------------------

D3319는 판단 → 실행 → 검증 → 보호 까지 연결하는 **폐루프(Closed-loop) 실행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D3319 5계층 실행 아키텍처 (확정)

<b>5. 보호, 상황 확장 (TEE)</b> 보안 · 책임 · 분산형 데이터 무결성 보증	<b>4. 실행 검증 (Verification)</b> 실행 결과 검증 · 공의원 확인 감사 추적 · 책임 관리	<b>3. 실행 제어 (Action Control)</b> 위험 탐지 · 상황 차단 안전 · 제어	<b>2. 제어 신호 (Control Signal)</b> AI 분석 결과를 실행 신호로 변환	<b>1. 워크플로우 OS (Workflow OS)</b> 의료 프로세스 자동화 업무 표준화 · 연동
---	---	---	---	---

<b>함께 만드는 의료 실행 생태계</b> D3319는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환자 안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b>제약사</b>  Pharma / Bio Partners	<b>디지털 헬스 기업</b>  Health Tech Partners	<b>보험사</b>  Insurance Partners
---	---	--	--------------------------------------

**D3319 (Real Action, Real Safety)**

D3319는 의료 AI의 다음 단계를 정의합니다.

**판단을 넘어 실행으로, 환자 안전을 완성합니다.**

- 환자 중심 안전 강화
- 데이터 기반 실행 혁신
- 협업 생태계 가치 창출

[인터뷰]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 이민구 사장 “NMN 논란, 공포 문구보다 실제 실험 데이터 확인 필수”

최근 NMN은 세포 에너지 대사와 건강한 노화에 관여하는 원료로 알려지며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제품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 그러나 관심이 커진 만큼 우려도 따라붙었다. 일부에서는 “NMN이 암세포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는 소비자에게 큰 불안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 주장이 실제로 맞는지다. NMN은 몸 안에서 NAD<sup>+</sup>를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이다. NAD<sup>+</sup>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암세포도 살아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NAD<sup>+</sup>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NMN을 먹으면 NAD<sup>+</sup>가 늘고, 암세포도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비료가 식물 성장에 필요하니, 어떤 식물에든 비료를 주면 무조건 더 잘 자란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로는 식물 종류, 흙 상태, 물의 양, 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포도 마찬가지다. 같은 물질을 처리해도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암세포 종류에 따라 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로킷헬스케어는 이 논란을 실제 세포 실험으로 확인했다.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해 Rokit NMN®을 9종 암세포주와 2종 정상세포에 처리하고, 48시간 뒤 세포 반응을 비교했다. 평가에는 폐암, 위암, 백혈병,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세포주가 포함됐다.

결과는 일부 주장과 달랐다. NMN을 처리했을 때 암세포주가 공통적으로 더 빠르게 자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암세포주에서는 세포 활동 신호가 줄었고, 일부는 정상세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세포 기반 평가에서는 “NMN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일관된 경향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NMN을 단순한 추론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암을 유발한다”, “암세포를 키운다”는 말은 빠르게 퍼지고 소비자 불안을 키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공포 문구가 아니라 데이터다.

약업신문은 최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로킷헬스케어 본사에서 이민구 사장을 만나, NMN과 암세포 반응을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이번 세포 실험의 의미, 안전성 자료 확보 현황, 향후 NMN 사업 방향을 짚어봤다.

**NMN과 암세포의 관계를 단순한 ‘성장 촉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NMN이 암세포를 잘 자라게 하나.**

‘NMN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주장은 논리 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하다. NAD<sup>+</sup>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이며 암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NMN을 섭취하면 NAD<sup>+</sup>가 늘고, 그 결과 암세포가 증가한다”고 바로 연결하는 것은 생물학적 대사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르다. 같은 물질을 처리해도 세포 종류와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NMN이 NAD<sup>+</sup>를 만드는 재료라는 사실만으로 암세포 성장 촉진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로킷헬스케어가 이번 세포 기반 평가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순한 추론이나 공포 문구가 아니라, 실제 세포 수준에서 NMN 처리 후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정 암세포주가 아니라 9종 암세포주와 정상세포를 함



로킷헬스케어 이민구 사장.

**왜 비교한 이유는 무엇인가.**

‘NMN이 암세포를 정말 더 잘 자라게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정 암세포주 한두 개만 보면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쳐 해석될 수 있다. 로킷헬스케어는 이를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암종에서 유래한 암세포주 9종과 정상세포 2종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다. NMN 처리 후 암세포주와 정상세포가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계다.

평가 대상 암세포주는 폐암(A549), 위암(SNU620), 백혈병(HL60), 유방암(MCF7), 난소암(SKOV3), 췌장암(MIA PaCa-2), 간암(HepG2), 자궁경부암(HeLa), 대장암(HT29)이 포함됐다. 정상세포는 인간 폐 섬유아세포(human lung fibroblast; MRC5)와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 HDF)를 사용했다.

실험은 Rokit NMN®을 각 세포에 처리한 뒤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진행됐다. 이후 WST-8 분석법을 이용해 세포의 반응을 확인했다. 이 방법은 살아있는 세포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색 변화 신호로 측정하는 실험이다. 쉽게 말해, 세포 수가 늘었는지,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또는 세포 활동성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단순히 “세포가 죽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NMN 처리 후 세포 전체의 활성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평가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 ‘NMN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경향이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실험에서 NMN을 처리했을 때 암세포주가 공통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NMN이 세포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다고 해서 모든 암세포주가 같은 방향으로 활성화되거나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부 암세포주에서는 WST-8 신호가 감소하는

변화가 관찰됐고, 또 일부는 정상세포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암세포주 종류에 따라 반응이 달랐고, ‘NMN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일관된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에서는 이를 선택성 지수(SI, Selectivity Index)로도 확인했다. 이는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WST-8 신호 감소 정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는 지표다. A549는 3.07, SNU620은 2.71, HL60은 2.56, MCF7은 2.52, SKOV3는 2.09로 SI 2 이상을 보였으며, 정상세포 대비 상대적으로 더 큰 WST-8 신호 감소가 관찰됐다. 반면 MIA PaCa-2, HepG2, HeLa, HT29는 SI 2 미만으로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결과를 두고 “NMN이 암세포를 죽였다”거나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번에 사용한 WST-8 분석은 세포 전체의 활성 변화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세포가 실제로 죽은 것인지, 세포 증식이 줄어든 것인지, 혹은 세포 활동성이 낮아진 것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NMN과 암세포주의 관계를 단순히 ‘성장 촉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적어도 이번 세포 기반 평가에서는 ‘NMN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일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에 유리한 세포주만 선별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실험 설계와 결과 공개에서 어떤 점을 고려했나.**

이번 평가는 특정 결과가 나오도록 일부 암세포주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폐암, 위암, 백혈병,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서로 다른 조직에서 유래한 9종의 암세포를 함께 평가했다. 즉, 특정 암세포 한두 개의 반응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양한 암 유형에서 NMN 처리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했다.

13면에 계속 ➔

## 9종 암세포주·2종 정상세포 비교... 일관된 성장 촉진 경향 확인 안 돼 로킷헬스케어, 원료 품질·안전성 자료로 NMN 시장 신뢰 높인다

### ◀ 12면에 이어서

결과 공개 방식에서도 일부 데이터만 선별하지 않았다. 반응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세포와 큰 차이가 없었던 세포 결과를 모두 함께 공개했으며, 선택성 지수(SI)가 2 이상인 경우와 2 미만인 경우도 모두 포함했다. 연구팀은 모든 세포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했고, 각 세포에서 나타난 WST-8 신호 변화를 그대로 제시했다.

이번 평가는 NMN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나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실제 세포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소비자와 시장이 NMN 관련 정보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외부 전문 시험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로킷헬스케어가 내부에서 직접 실험한 뒤 결과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시험기관인 프리케어에 정식 의뢰해 같은 조건에서 세포 반응을 확인했다. 유리한 결과만 고른 자체 실험이 아니라, 외부 기관을 통해 세포 기반 검증을 진행한 것이다.

프리케어는 홀로스메딕의 자회사다. 연구용 시약 공급, 항암 스크리닝, R&D 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Integrated DNA Technologies(IDT)의 국내 공식대리점으로 국내 바이오 연구 현장에 연구용 시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실험 설계부터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R&D CRO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모회사인 홀로스메딕은 항암제 내성 극복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기업이다. 약물 내성 암세포주 구축과 유효성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약 후보 물질 평가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평가는 단순한 내부 확인 실험이 아니라,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수행한 세포 기반 검증으로 볼 수 있다.

### NMN은 장기간 섭취를 전제로 하는 소재다. 로킷헬스케어는 어떤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NMN은 단기간 섭취하고 끝나는 소재가 아니다. 장기간 섭취 가능성을 전제로 봐야 한다. 그래서 로킷헬스케어는 단순히 'NMN이라는 성분이 좋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원료의 순도, 미량 불순물 관리, 반복투여 안전성, 돌연변이 관련 평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Rokit NMN®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원료다. 특히 장기 섭취 소재에서는 아주 작은 불순물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 수준의 불순물이라도 장기간 누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 때문에 원료 제조 단계에서 미량 불순물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설계했다.

안전성 자료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외부 GLP 시험 기관을 통해 반복 투여, 단회 투여, 돌연변이 관련 시험 등을 진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현 단계에서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 해당 자료가 국내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절차와 연결돼 있고, 원료 경쟁력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NMN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유통하려면 원료 품질과 안전성 자료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다. 로킷헬스케어는 확보한 안전성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원료 품질과 안전성 근거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NMN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추가로 이번 연구를 토대로 NMN과 암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in vitro 시험도 준비 중이다. NMN과 암의 연관관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연구할 뿐만 아니

라 효능 효과에 대해서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 로킷헬스케어 실험 외에도 참고할 만한 연구가 있다.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NMN과 암의 관계는 "NMN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암 종류, 실험 방식, 투여 용량 등에 따라 조건은 달랐지만, 주요 전임상 연구들에서는 NMN이 종양 성장을 증가시키지 않았거나 항암제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보고돼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Cancer Research에 발표된 「Nicotinamide Mononucleotide Prevents Cisplatin-Induced Cognitive Impairments」 연구에서는, 여러 유방암 세포와 동물 모델에서 NMN을 함께 처리해도 암세포 성장이 증가하지 않았고,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항종양 효과도 유지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NMN 병용이 항암 치료 효과를 일괄적으로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2024년 EMBO Molecular Medicine에 게재된 「Fertility protection during chemotherapy treatment by boosting the NAD(P)+ metabolome」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NMN을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항암제 효과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여러 인간 암세포에서도 항암제 반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까지 일부 연구들은 NMN이 암세포 성장을 일관되게 촉진한다는 단순한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NMN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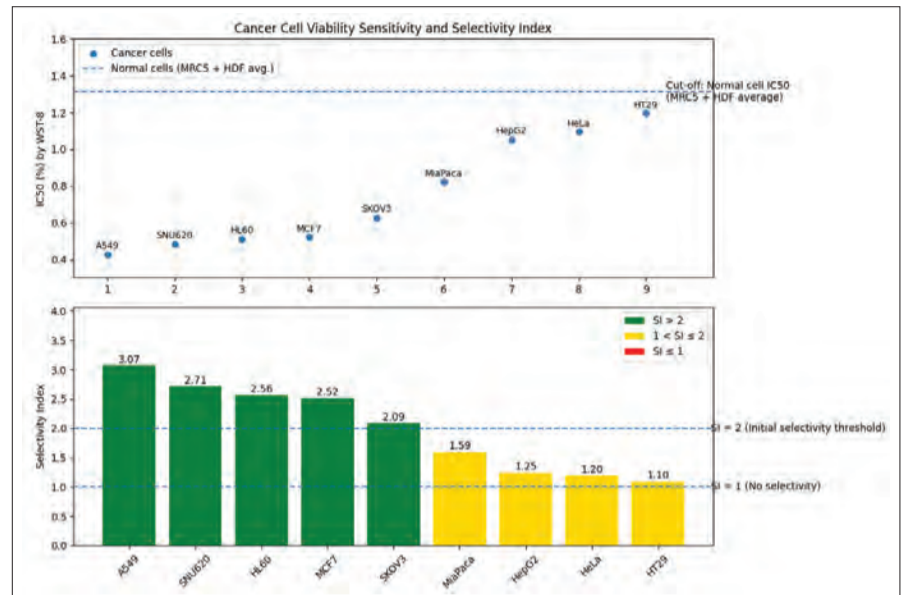
2017년 Oncotarget에 발표된 「Preclinical efficacy of the novel competitive NAMPT inhibitor STF-118804 in pancreatic cancer」 연구에서는, 쥐장암 모델에서 특정 항암 전략과 NMN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 연구에서는 암세포의 NAD+ 생성을 차단하는 항암 전략을 사용했는데, 외부에서 NMN을 보충하자 약물 효과가 약해지는 결과가 관찰됐다. 즉, NAD+를 고갈시키는 방식의 일부 항암 치료에서는 NMN 보충이 치료 기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 이번 논란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핵심은 NMN을 무조건 좋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단순한 생물학적 추론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암을 유발한다", "암세포를 키운다"는 식의 표현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소비자에게 강한 불안을 준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특정 성분을 둘러싼 논란이 생겼을 때는 공포 문구나 단순 추론이 아니라, 실제 시험 설계와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로킷헬스케어가 이번 세포 기반 평가를 진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NMN과 암세포주의 관계는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시장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검증과 투명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NMN 처리 후 암세포주가 일괄적으로 성장 촉진되는 경향이 입증되지 않았다. Rokit NMN® 처리 후 9종 암세포주의 WST-8 기반 세포 반응 및 선택성 지수(SI) 분석 결과. ©로킷헬스케어

NMN도 근거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NMN 시장에서 로킷헬스케어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

NMN 제품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성장 방식이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마케팅과 조금 달랐다. 연예인 광고나 대규모 마케팅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구매자들의 재구매와 리뷰를 중심으로 시장을 키워 왔다. 처음 NMN 제품을 출시했을 때는 첫 판매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내부에서 희식을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장기 구매 고객과 반복 구매가 매출 기반이 됐다.

소비자 반응도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지 않았다. 일부 고객은 제품 섭취를 중단한 뒤 체감 차이를 느꼈다는 리뷰를 남기기도 했고, 5년 이상 꾸준히 구매한 고객도 있다. 회사는 이런 재구매 흐름이 브랜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보고 있다.

로킷헬스케어는 NMN 시장이 커질수록 단순한 성분 경쟁보다 원료 품질과 안전성 자료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NMN이 제도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정리되면, 고순도 원료와 안전성 자료를 갖춘 기업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로킷헬스케어 NMN 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나.

로킷헬스케어는 NMN을 세포 단위 역노화(reverse aging) 전략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NMN을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기능 유지에 관여하는 소재로 보고, 앞으로 세포 노화와 관련된 원료와 제품군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향이다.

현재 피세틴, 스퍼미딘 등 세포 노화와 관련된 소재를 검토하고 있다. 여성 갱년기, 눈 건강 등 특정 수요를 겨냥한 제품군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단순히 유행하는 원료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지, 또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제품을 설계하려 한다.

세포 단위 평가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활성, 텔로미어 길이, 유전자 분석 등 세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살펴보고자 하는 구상이다. 텔로미어 관련 제품도 준비 중이다.

다만 역노화는 소비자 관심이 큰 만큼 과학적 검증과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단순히 역노화라는 표현을 앞세우기보다, 세포 반응 데이터와 원료별 근거를 다양한 연구와 임상시험을 통해 축적하면서 제품군을 확장하려고 한다.

**inno.N**  
innovate New & Next

전문약품

국내 허가된 TPN 중  
가장 높은 **ω-3 지방산**이 함유된<sup>1,2,3</sup>

**ω<sup>+</sup>오마프플러스원**  
HIGH ω-3 TPN

(ω-6 : ω-3 Ratio = 1 : 1)

국내 3상을 통한  
안전성 확보

대조약 대비 혈중  
EPA/DHA 유의하게 증가

타우린 함량을 통한  
Nitrogen Balance 개선

References. 1. Clinical study report of [IN.CPN.301]. 2. Clinical study report of [IN.PPN.301]. 3. 오마프플러스원주, 오마프플러스원페리주 허가사항. 의약품 안전나라

Product Information 오마프플러스원주 [성상] 3개의 소실로 구성된 무색투명한 수액용 플라스틱 내부 백과 외부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산소흡수제가 들어있다. 각각의 소실에 투명하고 무지 내지 미황색의 아미노산 전해질 용액(A액), 투명하고 무색 내지 미황색의 포도당 용액(B액), 그리고 유백색의 균질한 유헤인 지방 용액(C액)이 들어있는 주사제다. [효능/효과]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수분, 전해질, 아미노산, 칼로리, 필수 지방산 및 오메가-3 지방산의 보급 [용법/용량] 환자의 지방 제거 능력, 질소 및 당 대사능력, 영양 요구상태에 따라 용량과 주입 속도를 결정하며, 환자의 상태, 체중에 따라 용량과 백의 크기를 결정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미량원소, 비타민, 전해질 등이 첨가될 수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열, 오한, 발진 혹은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투어를 즉각 중단할 것 - 자세한 제품 정보는 제품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inno.N**  
innovate New & Next

에이치케이이노엔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39, 서울 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6,7,8층 고객센터: 080-700-8802 | <http://www.inno-n.com>

231214\_OMAP-INNA001-03-01

# GLOBAL BIZ

## ‘프로리아 공백’ 대비하는 암젠... 갈더마 CFO 전격 영입 승부수

디트리히, 암젠·샤이어·술처 거친 재무 전문가... 9월부터 CFO 공식 취임



### 갈더마 미수령 보상 보전 위해 대규모 현금·주식 패키지 제공

암젠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교체를 단행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와 주요 품목 특허 만료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피부질환 전문기업 갈더마 CFO를 영입하며 재무 리더십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암젠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CFO를 맡아온 피터 그리피스(Peter Griffith)가 오는 8월 말 퇴임한다고 밝혔다. 후임에는 갈더마 CFO 출신 토마스 디트리히(Thomas Dittrich)가 오는 9월 1일부터 공식 취임한다.

암젠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공식 퇴임 이후에도 내년 1월까지 회사에 남아 인수 인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로버트 브래드웨이(Robert Bradway) 암젠 최고경영자(CEO)는 “피터 그리피스는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새롭게 CFO를 맡게 되는 디트리히는 암젠 내부 재무 조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과거 암젠에서 여러 고위 재무직을 수행한 이후 샤이어(Shire), 술처(Sulzer)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갈더마 CFO를 맡아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암젠의 사업 구조 전환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암젠은 최근 바이오시밀러 경쟁 영향으로 핵심 골다공증 치료제 ‘프로리아(Prolia)’ 매출 감소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 암젠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

비 6% 증가한 86억달러를 기록했지만, 프로리아 매출은 바이오시밀러 경쟁 확대 영향으로 34% 감소했다. 다만 신규 성장 품목들이 공백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PCSK9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 ‘레파타(Repatha)’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8억7700만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암젠은 올해 연매출 가이던스를 371억~385억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368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브래드웨이 CEO는 지난 4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026년은 암젠의 스프링보드 해(springboard year)가 될 것”이라며 신제품 성장 기반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CFO 교체는 암젠 내부 전반의 경

영진 개편 흐름과도 연결된다. 암젠은 최근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리스(David Reese) 역시 오는 6월 말 퇴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책임자인 제임스 브래드너(James Bradner)는 연구개발(R&D)·인공지능(AI)·데이터 부문 총괄 역할을 맡게 되며, 글로벌 커머셜 책임자 머도 고든(Murdo Gordon)은 글로벌 시장·정책 조직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공식이 되는 CTO 자리에는 현재 AI·데이터 부문 수석부사장(SVP)을 맡고 있는 션 브루이치(Sean Bruich)가 선임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암젠이 AI와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 최윤수기자 jjysc0229@yakup.com |



## 길리어드, 유한양행과 다시 맞손... 1400억 규모 API 공급 계약 체결

2027년 말까지 비공개 품목 원료의약품 공급 예정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대한민국의 유한과 추가 원료의약품(API)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확대했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27년 말까지 비공개 의약품에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 규모는 2100억원(약 1억4000만달러) 수준이다. 계약 내용은 최근 한국거래소(KRX)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공

시에 따르면, 해당 계약 금액은 유한양행의 2025년 매출 대비 약 9.6% 규모에 해당한다.

유한양행은 현재 국내에서 2곳의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글로벌 API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길리어드와 유한양행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사는 지난 2018년 HIV 치료제용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계약 규모는 약 4500만달러였다. 이어 2023년에는 추가 HIV 치료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규모는 약 81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은 길리어드와 유한양행 간 네 번째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으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양사 간 누적 계약

규모는 약 2억7000만달러 수준까지 확대됐다.

유한양행은 최근 글로벌 제약사 대상 API 공급 사업을 연이어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브릿지바이오(BridgeBio)와 심근병증 치료제 ‘아트루비(Attruby)’용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약 3800만달러이며 계약 기간은 2년이다. | 최윤수기자 |



## “레캠비 진짜 확장 시작”... 에자이, 9억달러 매출 정조준

혈액 기반 진단·자가주사 혁신으로 초기 알츠하이머 시장 공략

복미 중심 처방 확대 본격화... “키순라 대비 성장 우위”

에자이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캠비’의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을 선언했다. 출시 초기 더딘 확산 속도로 시장의 우려를 받았지만,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BBM) 진단 확대와 자가주사 제형 도입을 기반으로 2026 회계연도 매출 9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제시하며 반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에자이는 최근 2025 회계연도 실적발표를 통해 레캠비의 2026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1435억엔(약 9억460만달러)으로 제시했다. 전년도 880억엔(약 5억5460만달러) 대비 큰 폭의 성장 전망이다. 에자이 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다.

레캠비는 바이오젠(Biogen)과 공동 개발한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다. 미국 FDA 승인 이후 2024 회계연도 매출 443억엔(약 2억7900만달러)

을 기록했고, 2025 회계연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880억엔 규모로 확대됐다.

에자이는 특히 복미 시장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2025 회계연도 복미 매출은 446억엔(약 2억8100만달러) 규모였다.

하루오 나이트 에자이 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레캠비는 미국과 주요 시장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 분야 ‘톱 브랜드’라며 “미국과 일본 모두에서 두 번째 브랜드 대비 매출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경쟁 제품은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라(Kisunla)’다.

에자이는 레캠비 성장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아밀로이드 베타 확진 진단의 복잡성 △정맥주사(IV) 기반 치료 부담 등을 지목해왔다.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혁신적 기술 기반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BBM) 검사 확대다. 기존 레캠비 투약을 위해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여부를 PET 영상이나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했지만, 혈액 기반 진단이 확대될 경우 진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에자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확진 진단 가운데 약 15%가 BBM 기반으로 시행됐다. 이는 2024년 초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회사는 2026년 추가 승인들이 이어질 경우 2028 회계연도에는 전체 아밀로이드 베타 확진 진단의 절반 이상이 BBM 기반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투약 편의성 개선도 성장 전략 핵심 축이다.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지난해 8월 레캠비 유지요비용 주 1회 자가주사 오토인젝터 ‘레캠비 아이클릭(Iqlik)’ 승인을 획득했다. 회사는 해당 제형 승인 이후 정맥주사와 자가주사 모두에서 신규 환자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자이는 올해 여름 FDA가 자가주사 제형의 초기 치료 적응증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추가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병원 방문 부담이 적은 재택 기반 자가주사 옵션이 기존 치료를 망설였던 환자군까지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레캠비의 장기 투약 지속률 데이터도 강조됐다.

에자이에 따르면, 미국 실제 처방 환경(real-world data) 기준 레캠비 환자의 72%가 18개월 시점까지 치료를 유지했고, 2년 시점 유지율도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조기 치료 시작과 장기 유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가 처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최윤수기자 |

## SPECIAL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은 이제 정보기술(IT) 영역을 넘어 의료와 바이오 헬스케어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IT 기업 AWS는 'AWS 서밋 서울 2026'에서 생성형 AI 이후의 흐름으로 에이전틱 AI

(Agentic AI)를 제시했다. 약업신문은 현장에서 최신 AI 기술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 주〉

## “에이전틱 AI, 바이오헬스케어 현장으로 확장”

AWS 서밋 서울 2026 성료... 중앙대의료원·롤루메딕 사례 공개  
의료진 주도 AI 도구 개발·의료 마이데이터 인프라 전환 본격화



AWS코리아 함기호 대표.

**“AI가 일상이 된 지금, 생성형 AI는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가 에이전틱 AI를 앞세워 산업별 AI 전환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AWS 서밋 서울 2026은 AI가 헬스케어·생명과학·뷰티 현장의 서비스, 업무, 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조명했다.

AWS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AWS 서밋 서울 2026'을 개최했다. 행사는 21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AWS 서

밋 서울은 국내 최대 규모의 AI·클라우드 기술 컨퍼런스로, 올해는 AWS 20주년과 맞물려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과정과 에이전틱 AI가 이끌 산업 변화를 함께 다뤘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판단·수행하는 AI를 뜻한다. 생성형 AI가 답변이나 콘텐츠 생성에 머물렀다면, 에이전틱 AI는 업무 흐름 안에서 여러 작업을 이어 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AWS코리아 함기호 대표는 개막 기조연설에서 “AI가 일상이 된 지금 AWS코리아는 고객의 AI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밋에서는 비즈니스의 미래를 AI와 함께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과 4~5년 전 처음 나온 생성형 AI는 이제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개발 방식 자체를 바꾸는 AI 기반 개발,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첫째 날 'Industry Day', 둘째 날 'AI Day'로 구성됐다. Industry Day에서는 공공·헬스케어, AI 시대 리더십, 리테일·커머스, 금융·핀테크, SaaS·디



'AWS 서밋 서울 2026' 현장.

지털 플랫폼, 제조·하이테크, 피지컬 AI, 통신·미디어·게임, 트래블·호스피탈리티 등 산업별 트랙이 진행됐다.

AI Day에서는 AI 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 AI, 에이전트 구축 도구, 에이전트 실행과 전환, AI 인프라, AI 보안 및 거버넌스 등이 다뤄졌다. AWS는 기조연설과 세부 세션, 워크숍, 엑스포 데모를 통해 AI가 기업 업무와 고객 경험에 적용되는 과정을 제시했다.

올해 핵심 키워드는 에이전틱 AI다. 생성형 AI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에 머물지 않고, 사용자의 목적을 이해

해 여러 작업을 이어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바이오헬스케어와 뷰티 산업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두 분야 모두 고객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연구개발 효율화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서밋에서는 중앙대학교의료원, 롤루메딕, 아모레퍼시픽, CJ올리브영 등이 AI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피부 진단·상담형 뷰티테크, CJ올리브영은 AI 기반 서비스 기획과 업무 전환 사례를 각각 선보였다.

## “병원 문턱 넘었다” 의료진이 직접 AI 도구 만든다



중앙대의료원 김찬웅 교수.

**“의료의 본질은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AI 전환도 결국 환자 중심 의료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 AI는 더 이상 외부 솔루션을 도입해 쓰는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의료진이

직접 현장 문제를 찾고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중앙대의료원 사례가 소개됐다. 중앙대의료원 김찬웅 교수는 의료진이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기획하고 구현하는 병원 AI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이 AI 혁신 과정에서 마주한 과제로 진료 업무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의 고도화, 핵심 가치에 대한 집중을 꼽았다. 그는 “의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영역”이라며 “진료와 행정의 흐름 자체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AI를 접목하면 이 과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데이터에는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어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의료데이터가 가

진 2차적 가치는 매우 크고, 산업과 연결될 가능성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전환 목적을 단순 업무 효율화로 보지 않았다. 진료 프로세스가 빨라지고 업무 시간이 줄어도, 그 결과가 환자 진료의 질과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의료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도구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의료진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개발자가 이해하는 요구사항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기술은 빠르게 바뀌지만, 병원 안에서 이를 검토하고 적용하는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의료 현장을 이해하면서 기술 구현까지 할 수 있는 인력도 많지 않다.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구성원이지만, 이들이 개발 언어와 구현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실제 도구로 이어지기 어렵다.

중앙대의료원은 이 문제를 의료진 주도형 AI 리터러시 강화로 풀어냈다. AWS Training and Certification(T&C)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의료진 250명 이상이 참가했다. 의사부터 간호사, 영상 관련 인력, 진단검사 인력, 심리 분야 인력, 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이 각자의 현장 문제를 들고 참여했다.

중앙대의료원은 참여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시하고, 3일간 팀 단위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프로토타이핑 방식을 적용했다. 개발 경험이 없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16개 팀은 모두 프로토타입을 완성,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중앙대의료원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17면에 계속 ▶

# SPECIAL

## ◀ 16면에 이어서

김 교수는 “참여자들은 그동안 코딩을 해본 적이 없었고, 개발을 하자고 하면 손사래를 치던 분들이었다”며 “그러나 현장 문제 해결의 핵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바로 이들이었다”고 말했다.

## 수백 줄 처방 이력 정리부터 논문 실적 입력까지

구체적 사례는 Kiro를 활용한 스펙 기반 개발이다. Kiro는 자연어 요청을 요구 사항, 설계, 코드, 문서, 테스트로 연결하는 AWS의 에이전틱 코딩 서비스다. 의료진이 필요한 기능을 자연어로 설명하되, 요구사항과 수정 범위를 먼저 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교수는 의료진의 업무 방식과 Kiro의 구조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진료지침과 기준에 따라 사고하는 데 익숙하다. 이 때문에 자연어 기반 개발에서도 기능 목적, 사용 범위, 수정 기준을 먼저 정리하는 스펙 기반 개발이 의료 현장

에 더 맞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구현 사례로는 응급실 등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약물 처방 이력 분석 도우미가 제시됐다. 의료진은 환자 동의를 기반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심평원 처방·조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처방일과 복용 기간이 제각각 이어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빠르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고령 환자처럼 복용 약물이 많은 경우 수백 줄의 처방 데이터를 직접 읽고 판단해야 한다.

중앙대의료원은 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최근 새로 추가된 약물, 중단된 약물을 용량과 성분 기준으로 정리하는 도구를 구현했다. 의료진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는 유지하되, 반복 계산과 정보 정리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처방·조제 이력은 날짜별로 나열돼 있지만, 처방일이 가깝다고 해서 지금 복용 중인 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3개월 전에 180일 처방받은 약은 현재

복용 약물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구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새로 추가되거나 중단된 약물을 정리해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며 “의료진의 최종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볼 때 시간 단축을 넘어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업무 자동화 사례도 나왔다. 대학병원 교수는 논문 실적을 학교 업적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기존에는 논문 PDF를 보면서 제목, 공저자, 페이지, 권호 등 서지 정보를 칸마다 직접 입력해야 했다. 중앙대의료원은 PDF에서 학교 업적 시스템이 요구하는 서지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입력 화면에 반영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

진료, 연구, 교육, 행정 전반에는 반복적 데이터 처리와 문서화 업무가 존재한다. 중앙대의료원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의료 현장 AI 에이전트를 더 빠르

고 폭넓게 적용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의료 AI 확산에는 보안과 검증·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접근 권한, 데이터 처리, 로그 관리, 환자 동의, 내부 검증 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자동화 도구가 의도하지 않은 파일 변경이나 삭제 일으킬 수 있고, 잘못 반영된 내용을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실제 개발 과정에서 확인된 한계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의 AI 전환에서 보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보안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의료 현장이 얻을 수 있는 더 큰 성과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병원 안에서 하나씩 다뤄지는 현실의 문제”라며 “앞으로는 외부 기술을 가져와 쓰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업무 맥락을 가장 잘 아는 의료진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실제 도구로 구현하는 흐름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 마이데이터, 기록 조회 넘어 AI 인프라로 진화”

의료 마이데이터가 해외 의료지원과 초개인화 정밀의료 AI를 연결하는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다. 병원과 국가, 서비스별로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구조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룰루메딕은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는 룰루메딕 김영웅 대표이사가 맡았다.

김 대표는 “의료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단절된 의료데이터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별로 분산돼 있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진료·처방·접종이력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 이 단절은 해외 진료 과정에서 진료 지연, 중복 검사,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룰루메딕은 이 문제를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디스택(d'stat)으로 풀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d'stat은 국내 의료기록을 한 곳에서 연결·관리해 개인 중심의 건강 데이터를 생성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기록을 통합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호출과 전송은 주제 동의 기반으로 이뤄진다.

룰루메딕은 의료기록을 생활, 예방, 분석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 건강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가 소비자 앱을 넘어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표에서는 실제 해외 의료지원 사례가 제시됐다. 베트남 단기여행 중이던 59세 남성 환자는 손가락을 잃어버리면서 고혈압·고지혈증 약도 함께 분실했다. 약물 성분명과 용량, 복용 횟수를 알지 못해 현지 처방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가족이 한국에서 처방전을 보내고 의료진이 이

를 번역해 동일 성분 약을 처방받았지만, d'stat이 연결돼 있었다면 복용약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필리핀 장기체류 중인 3세 남아 사례에서는 예방접종 이력 확인 문제가 제기됐다. 보호자는 아기수첩을 분실했고, 일본뇌염 백신 종류와 접종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경우에도 예방접종 이력과 날짜를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보호자와 현지 의료진의 판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 대표는 “해외 의료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국내 의료기록을 필요한 순간에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것이 의료 마이데이터 국외 이전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의료 마이데이터 위에 AI를 올리는 전략

룰루메딕은 의료 마이데이터의 다음 단계로 에이전틱 AI 기반 초개인화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시했다. 회사가 보유한 의료 마이데이터, 재외국민 의료 컨시어지 데이터, 생활건강 데이터에 AI 언어모델 기술을 결합해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 맥락을 이해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발표에서는 업스테이지 AI 언어모델 기술과 룰루메딕 데이터 자산을 결합하는 확장 구상도 소개됐다. 룰루메딕이 데이터 경쟁력을 제공하고, 업스테이지가 AI 언어모델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방향은 병원 중심 의료 AI를 넘어 건강관리, 예방, 웰니스 중심의 차세대 헬스케어 AI로 확장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금융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개방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결합하면서 시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역시 데이터만으로는 서비스가 완성되지

않고, AI만으로도 개인에게 의미 있는 의료 경험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앞으로 경쟁력은 의료기록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보다, 그 데이터를 정보주체 동의 기반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고, 해외 진료와 국외 이전, AI 분석까지 이어지는 산업 인프라로 확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의료데이터 국외 이전, AWS 보안 구조로 뒷받침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요구도 커진다.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저장, 활용, 전송, 국외 이전 전 과정에서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룰루메딕은 보건복지부 지정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의료데이터의 합법적 저장·활용·국외 이전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를 아시아인 표준 의료데이터 구축, 글로벌 제약바이오 협업, 해외 의료서비스 확장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는 AWS 클라우드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d'stat의 사용자 요청은 앱에서 시작해 여러 보안·네트워크 단계를 거친다. WAF와 Shield는 외부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고, Route 53은 사용자의 요청을 적절한 경로로 연결한다. ALB는 들어온 트래픽을 서비스 서버로 나눠 보내는 역할을 한다.

룰루메딕은 이후 Gateway VPC, Transit Gateway, AWS Network Firewall 등을 활용해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을 분리했다. 여러 네트워크를 한곳에서 연결하고, 주요 트래픽을 중앙에서 점검하는 구조다.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을



룰루메딕 김영웅 대표이사.

나눈 것은 특정 AWS 서비스 하나의 기능 이라기보다,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만든 아키텍처 설계에 가깝다.

서비스 운영에는 EKS와 VPC Endpoint가 활용됐다. EKS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장하기 위한 컨테이너 기반 관리형 서비스다. VPC Endpoint는 외부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AWS 내부 서비스와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한 구조다. 데이터는 Aurora DB와 S3에 저장되며, Secrets Manager는 인증정보를 관리하고 CloudWatch Logs는 서비스 로그를 모니터링한다. 의료정보원 중개서버는 실제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가 이뤄지는 접점으로 제시됐다.

김 대표는 “핵심은 보안성을 높이고,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을 분리하며, 향후 AI 서비스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AWS 선택 이유로 3중 보안 계층, 서울 리전 기반 글로벌 확장성,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관리, 데이터 보호 기능, 마이크로서비스 운영, 고가용성·확장성을 꼽았다. | 권혁진 기자 hikwon@yakup.com |

## GLOBAL TREND

## 노보 '오젠폭' 저용량 정제 美서 4일 발매 돌입

세마글루타이드 1.5mg, 4mg 및 9mg... 최저 월 25弗 부담

노보 노디스크社는 성인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젠폭' (세마글루타이드)의 1.5mg, 4mg 및 9mg 정제가 5월 4일부터 미국시장에서 발매에 돌입한다고 지난 1일 공표했다.

'오젠폭'은 FDA의 허가를 취득한 유일한 성인 2형 당뇨병 환자 치료 경구용 펩타이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치료제이다. 식이요법, 운동에 병행해 복용하면 혈당 수치의 조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및 심인성 사망 등의 주요 심혈관계 제 증상(MACE)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2형 당뇨병 치료제이다.

원래 2형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는 '리벨서스' 명칭으로 발매되어 왔지만, '오젠폭' 정제와는 조성(formulation)과 용량 등에 차이가 있다.

노보 노디스크社의 에드 신카 마케팅·환자 솔루션 담당부회장은 "이제 '오젠폭'이 주사제와 경구제가 하나의 브랜드로 발매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개별환자별 맞춤형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상의 니즈에 가장 적절한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젠폭' 정제는 전체 제조과정이 오토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발매가 개시됨에 따라 미국 전역에 산재한 70,000여 약국들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됐다.

'오젠폭' 정제는 노보 노디스크가 의료보험 미가입 환자 또는 비만 치료 목적일 경우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보험 가입 환자들을 위해 개설한 '노보케어 파마시' (NovoCare Pharmacy) 및 원격의료업체 등을 통해 본인부담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2형 당뇨병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 정제가 '노보케어 파마시'를 통해 공급이 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젠폭' 주사제는 2형 당뇨병 치료제로 활발하고 빈도높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오젠폭' 주사제는 지난 8년여 동안 다빈도 처방이 이루어져 왔다. 다만 '오젠폭' 주사제와 '오젠폭' 정제는 소아환자용으로 아직까지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다.

'오젠폭'이 선을 보이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체내에서 특정한 생물학적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인식되어 왔다.

'오젠폭' 정제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모방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mimics)

2형 당뇨병 치료용 세마글루타이드 정제는 지난 2019년 '리벨서스' 브랜드-네임으

로 처음 허가를 취득했다. 당시 허가된 '리벨서스'의 용량은 3mg, 7mg 및 14mg 등이었다. 이들 용량은 개량을 거쳐(reformulated) '오젠폭' 1.5mg, 4mg 및 9mg 용량으로 변경됐다.

'오젠폭' 1.5mg, 4mg 및 9mg 정제는 '리벨서스' 3mg, 7mg 및 14mg 정제와 유사하게 작용해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나타내게 된다.

'오젠폭' 정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최대 3개월 동안 월 25달러의 약제비를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노보케어 파마시' 또는 원격의료업체를 이용하는 본인부담 환자들의 경우 '오젠폭' 1.5mg 정제를 월 149달러, '오젠폭' 4mg 정제를 월 199달러, '오젠폭' 9mg 정제를 월 299달러의 약제비 부담으로 복용할 수 있다.

| 이덕규기자 abcd@yakup.com |

## '레캠비' 피하주사제 유도요법 FDA 심사기간 연장

'신속심사' 대상 지정 불구 3개월 딜레이... 유지요법 지난해 승인

에자이社와 바이오젠社는 알쯔하이머 치료제 '레캠비' (레카넨-irmb)의 주 1회 피하주사제 유도요법의 허가신청건과 관련, FDA로부터 심사기간의 3개월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지난 8일 공표했다.

'레캠비'의 주 1회 피하주사제인 '레캠비 아이클릭' (LEQEMBI® IQLIK™)의 초기 알쯔하이머 치료 유도요법에 대한 허가신청서는 지난 1월 FDA에 의해 접수되어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레캠비 아이클릭' 유도요법은 5월 중으로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현재 발매 중인 '레캠비'는 2주 간격으로 1회 투여하는 정맥주사제로 사용되고 있다.

심사기간의 3개월 연장이 통보됨에 따라 '레캠비 아이클릭' 유도요법의 승인 유무에 대한 FDA의 결론은 처방약 유지피법(PDUFA)에 의거해 오는 8월 24일까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심사절차의 일환으로 FDA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토록 요망했다.

FDA는 추가로 정보를 제출토록 요

구한 것이 허가신청 내용의 중요한 변경(major amendment) 요건을 구성한다고 보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처방약 유지피법에 의거한 심사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FDA는 '레캠비 아이클릭' 유도요법의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우려사안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에자이와 바이오젠 양사는 '레캠비'의 다양한 임상시험 및 투여요법 전반에 걸쳐 피하주사제를 평가한 포괄적인 임상자료 패키지가 '레캠비 아이클릭' 유도요법의

잠재적 사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

앞서 FDA는 지난해 8월 26일 '레캠비 아이클릭' 피하주사제 유지요법을 승인한 바 있다.

'레캠비'는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허가를 취득해 초기 알쯔하이머 치료대안으로 폭넓은 규제당국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에자이와 바이오젠 양사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FDA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을 때 환자와 치료 파트너들(care partners)에게 신속하게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항-아밀로이드 치료제의 공급과 관련해서 보다 큰 유연성과 선택권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FDA, 체장암 신약 후보물질 동정적 사용 확대

레볼루션 메디슨 전이성 체장관 선암종 치료제 다락손라십

FDA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시티에 소재한 항암제 개발 전문 제약 기업 레볼루션 메디슨社(Revolution Medicines)에 안전성 확인서한(safe to proceed letter)을 발송했다고 지난 1일 공표했다.

이 서한은 레볼루션 메디슨 측이 체장암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 중인 다락손라십(daraxonrasib)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확대시행(EAP)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송된 것이다.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의 확대는 앞서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있는 전이성 체장

관 선암종(PDAC)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FDA는 지난달 28일 레볼루션 메디슨 측으로부터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의 확대 요청서를 접수받은 후 같은 달 20일 이 요청서에 서명을 마친 바 있다.

이와 관련, FDA는 치료 계획서(treatment protocol) 또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치료제 후보물질로 다수의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목적을 두고 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지침에 따르면

확대시행 요청서는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신해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제약사 측에 제출해야 한다.

FDA의 마티 A. 매커리 최고책임자는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확대시행 요청서를 접수받은 후 불과 이틀 만에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FDA가 체장암을 포함해 중증 및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질환에 대응하는 치료제들에 대한 접근성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다수의 전이성 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취해진 조치가 전이성 체장관 선암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삶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


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다락손라십은 대다수의 체장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RAS 유전자의 변이를 억제하도록 설계된 RAS 유전자 저해제의 일종이다.

레볼루션 메디슨 측은 지난달 13일 FDA의 '국가 신속심사 바우처' (CNPV)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가운데 다락손라십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임을 공표한 바 있다.

FDA는 지난해 10월 'RMC-6236'으로도 불린 다락손라십을 대상으로 1매의 '국가 신속심사' 바우처'를 부여했다.

한편 FDA는 앞서 다락손라십에 '혁신 치료제'와 '희귀의약품'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GC 녹십자

고함량 활성B타민의 힘

  
비맥스 전속모델 비 (정지훈)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비맥스 제트 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2026-1795-001714 허가 및 제조사: (유)한풍제약 | 판매자: (주)녹십자

## NutraDex REPORT

건강기능식품

## 2025년 전기식 연간 구매액 상승 반전

## 30대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구매액 증가

지난해 가구별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구매액이 다시 상승세로 반전했다. 4월 23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보고서에서 2025년 가구당 연평균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31만 7689원을 기록,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구매액은 3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다. 특히 가구주 나이가 60대 이상인 가구에서 증가

세가 컸다.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구매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던 2023년~2024년 가장 크게 소비를 줄였던 연령대가 다음 아닌 60대. 2023년 구매액은 15%나 줄었고, 2024년 역시 0.5% 감소하며 2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5년에는 건강기능식품 구입액이 전년보다 9.8%나 증가하며 빠르게 회복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30대 가구의 건강기능식품 연간

구매액은 28만4776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1% 줄었다. 2024년에도 6.4% 감소했던 30대 가구의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작년에도 큰 폭으로 감소,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구매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 가구로 나타났다. 가구주 나이가 40대인 가구의 2025년 연평균 건강기능식품 구입액은 36만원을 돌파했다. 2024년 8.2%나 증가했던 40대 가구의 전기식 구매액은 2025년에도 6.5% 증가해 꾸준하면서도 가파른 모습을 유지했다.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2025년에도 유산균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에서 차지하는 유산균의 점유율은 31.4%를 기록했다. 2위는 비타민·미네랄로 28%, 3위는 인삼류로 19%, 4위는 EPA/DHA로 1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상위 4품목 중 유산균과 인삼류는 점유율이 전년보다 줄었고 비타민·미네랄과 EPA/DHA는 상승세를 보였다.

※ 약업닷컴에서 뉴트라덱스 리포트를 다운로드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식료품 유통업계 재편... 전문점·슈퍼마켓 명암

마켓세어, 전문 유통업체 ↑ vs. 전통적 슈퍼마켓 업체 ↓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을 구매하는 장소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유통업체들의 마켓세어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슈퍼마켓 업체들은 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슈머 엣지(Consumer Edge)는 4월 22일 공개한 '2026년 미국 식료품 업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월 28일 현재까지 최근 12개월 동안 전체적인 식료품 지출액이 전년 대비 3% 안팎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컨슈머 엣지의 거래내역 자료를 보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인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선택적으로 소비하면서 강력한 가치 또는 보다 차별화된 쇼핑경험을 제공하는 소매유통업체들에서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트레이더 조'(Trader Joe)가 매출이 전년 대비 3% 성장했을 뿐 아니라 전체 식료품업계를 6점 상회하는 실적을 수확하면서 최고의 식

료품 소매유통기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릭스'(Publix)와 '세이프웨이'(SAFEWAY)가 전체 소득구간에서 실적이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층 소비자층에서 가장 큰 폭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가격할인을 장점으로 하는 식료품점 업체들의 경우 지난 수년간 매출을 끌어올리다가 최근들어서는 제자리 걸음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 전문 식료품점 체인업체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Sprouts Farmers Market)은 급성장했다.

컨슈머 엣지의 마이클 건터 연구마켓 인텔리전스 담당부사장은 "식료품점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비단 가격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그들이 충성심을 나타내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는 유통기업들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 원료 포커스

## 활성산소 대항, 신경 지키는 칼렌둘라

## MSG 유발 신경독성 지표 개선하는 것 확인

칼렌둘라(Calendula officinalis)는 포트 마리골드, 잉글리쉬 마리골드 등으로 불리는 식물로 허브차는 물론, 다양한 허브 테라피의 재료다. 칼렌둘라의 꽃과 잎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치료용으로 활용했다. 또 꽃과 잎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은 연고와 팅처로 활용됐다. 약용과 식용으로 두루 활용되었던 셈이다.

칼렌둘라 추출물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기능이 매우 탁월하다. 칼렌둘라에 함유된 다양한 트리테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때문이다. 인도 스리시다강가 약학대학 연구팀이 2012년 Indian Journal of Clinical Biochemistry에 발표한 동물실험을

보면 MSG로 신경독성을 유발한 마우스에 칼렌둘라 추출물을 투여하자 산화 스트레스 및 뇌의 해마 손상이 유의하게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 궤양을 완화하는 용도로도 칼렌둘라 추출물을 활용할 수 있다. 브라질 쿠리티바 병원 연구팀이 2016년 Journal of Wound care에 발표한 임상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이 난치성 정맥성 하지궤양 환자 57명에게 칼렌둘라 추출물 치료를 30주간 진행한 결과, 완전 상피 재생을 달성, 치유 속도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칼렌둘라 에센셜 오일을 연고로 활용한 전통 민간요법에 과학적 근거가 있던 셈이다.

PROFESSIONALITY | 실적으로 검증받은 특보적 전문성

Neo NUTRA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CRO      기능성원료 인체적용시험 CRO

네오뉴트라(주)에 맡겨주십시오.

585 임상(인체적용)시험 누적 수행실적(2026)	39 국가연구개발과제 누적 수행실적(2026)	Clinical Trial Consulting	Protocol Development	Medical Writing	Data Management & Statistics	IRB/IND Approval	Site Monitoring
------------------------------------	---------------------------------	------------------------------	-------------------------	--------------------	---------------------------------	---------------------	--------------------

Neo NUTRA      네오뉴트라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학로 44, 4층(효제동, 우일빌딩) | Tel : 02-2277-3935 | Fax : 02-2277-3940 | Email : help@neonutra.com

HLS Seoul      서울시우수기업      The Excellent Company of Seoul      벤치마크기업

# 마음 건강 전기식 급성장 준비 마쳤다

## 소비자 수요 탄탄, 디지털 서비스 접목 관심

마음 건강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불안, 우울,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수가 늘고 있는 것. 실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0년 약 8만 3000명 수준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가 2024년에는 1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

우울증, 불면증 등을 관리하기 위한 마

음 건강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도 늘어나면서 마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예측분석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 솔루션이 더욱 정교하게 개인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Woebot, Wysa, Replika 등 서비스가 대표적. 국내에는 트로스트, 마인드카페, 마인들링 등이 마음 건강 앱 서비스로 자리 잡은 상태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메디컬 매니지먼트 그룹의 멜로 마인드 역시 기대를 모은다.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개발한 멜로 마인드는 분석 AI의 정확도와 몰입도 측면에서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통해 수집된 9억 건의 행동 정보 덕분에 사용자의 미세한 행동 변화만으로도 현재 마음 상태를 상당히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마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도 관심의 대상이다.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 기능을 표방하는 마음 건강 관리 제품 시장은 현재 약 500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제품군은 테아닌, 홍경천 추출물, 유단백 가수분해물, 아쉬아간

다 추출물 등이다. 마음 건강 기능식품 시장은 2023년 700억 원을 돌파하며 크게 도약했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세로 인해 2024년에는 461억 원 규모를 형성했다. 그런데도 전망은 나쁘지 않다. 2024년 이후 8종의 신규 기능성 원료가 등재되며 시장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도 스트레스, 수면 관련 신규 원료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황칠 등 전통 천연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신규 개별 인정 원료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약업닷컴에서 뉴트라덱스 리포트를 다운로드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달걀 매일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최대 27% ↓

### 매주 최소 5일간 1일 1개 섭취그룹과 비섭취 그룹 비교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달걀을 자주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미국 달걀협회(AEB)는 달걀 1개를 최소한 한 주당 5일 동안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을 위험성이 최대 27%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월 5일 공개했다. 연구는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로마린다에 소재한 로마린다대학 공중보건대학의 후안 사바테 교수가 총괄한 연구팀에 의해 진행됐다.

달걀을 월 1~3회 섭취했을 때 알츠하이머 위험성을 17%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 2~4회 섭취할 경우 알츠하이머 위험성을 2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사바테 교수는 달걀에 함유된 콜린이 두뇌 건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

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과 포스파티딜콜린의 전구체로 체내에서 이들 물질로 전환된다. 아세틸콜린과 포스파티딜콜린은 기억력과 시냅스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달걀은 카로티노이드의 일종들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이 뇌 조직 내부에 축적되면 인지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산화(酸化) 스트레스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사바테 교수는 환기시켰다. 이와 더불어 달걀의 오메가-3 지방산 성분과 노른자의 인지질 성분도 뇌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총 4만명의 조사 대상자들을 평균 15.3년에 걸쳐 추적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적당한 양의 달걀 섭취가 균형 잡힌 식생활의 한 부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 원료 포커스

## 변비약으로 이름난 카스카라 사그라다

### 안트라퀴논 화합물이 장 점막 자극해 변비 해소

카스카라 사그라다(Frangula purshiana)는 북미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원주민들과 초기 미국 정착민들이 완화제 용도로 사용했다. 변비가 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껍질을 벗겨 이를 약으로 사용하게 된다. 벗겨낸 나무껍질을 몇 달 숙성해 말린 후 추출물을 만들거나 분말을 활용한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를 말리면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 안트라퀴논 화합물이 나타내는 색깔이다. 안트라퀴논 화합물은 센나 잎, 알로에 베라 유액, 대황 뿌리 등에도 들어있는 화합물인데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트라퀴논 화합물이 장에 유입되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자에 붙어있던 당을 분

리, 아글리콘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아글리콘이 장 점막을 자극해 장 운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글리콘은 이와 함께 장의 수분 흡수를 방해해 변을 수분이 많은 무른 상태로 만들기도 한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변비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됐다. 그러나 판매업자들이 이를 체중조절용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도록 선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작용이 장을 자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오남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FDA는 2002년 카스카라 사그라다 일반의약품이 안전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ONE-STOP SERVICES | 기능성원료 인허가 모든 절차 대행부터 상품화 컨설팅까지

네오뉴트라(주)가 함께합니다.

125

기능성원료 인허가  
누적 인정실적(2026)

A→Z

One-Stop  
Services

MFDS

Application Form  
Writing & Submit

네오뉴트라 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대략로 44, 4층(호재동, 우일빌딩) | Tel : 02-2277-3935 | Fax : 02-2277-3940 | Email : help@neonutra.com

서울시우수기업  
The Excellent Company of Seoul

# 日 글루코사민, QOL 소재로 우뚝

## 탄탄한 고령자 수요, 부원료로 사용 빈도도 증가

일본 건강식품 시장에서 글루코사민의 입지가 날로 탄탄해지고 있다. 고령층의 탄탄한 수요에 힘입어 안정된 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근래에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제품의 부원료로 활용되며 인기가 계속 늘고 있다. 근래에는 액티브 시니어들도 늘어나면서 관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고령 취업자 수가 작년 연말 기준 943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단기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활성화되면서 고령자 취업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 관절 건강을 보조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

하는 중이다. 근래 프로테오글리칸, 2형 콜라겐 등이 관절 신소재로 바람을 일으키는 상황이지만 글루코사민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관절 제품으로 워낙 장기간 입지를 다져온 덕에 쉽게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신소재의 효과를 보충하는 부원료로 사용되며 사용 범위가 더 넓어졌다. 관절 시장의 대표 신소재인 프로테오글리칸이나 2형 콜라겐은 적은 섭취량으로도 글루코사민에 버금가는 효과를 준다는 것이 큰 장점. 그러나 이들 소재가 글루코사민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글루

코사민 제품의 섭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인공은 신소재로 보이지만 사실 글루코사민이 제품의 콘셉트를 결정하는 발판이 된 모습이다. 관절 시장에서의 탄탄한 입지 덕에 글루코사민은 일본에서 매년 1300톤 규모의 사용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주요 공급 업체로는 코요케미컬, 아이즈 수산화공업, 나카하라, 프로틴케미컬, 후소화학공업, 프리맨뉴트라 그룹, 바이오메디컬웰니스, 건강소재연구소 등을 꼽을 수 있다. 현

재는 중국산 글루코사민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중국산 원료를 일본에서 재처리해 품질을 높이거나 아예 일본에서 생산하는 원료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원료 가격은 글루코사민 염산염을 기준으로 1kg당 중국산은 2000~2500엔, 일본에서 정제를 거친 원료는 3000엔, 일본에서 생산된 원료는 6000엔 정도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물류 및 생산 비용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글루코사민 원료의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다.

※ 약업닷컴에서 뉴트라덱스 리포트를 다운로드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全世界 치즈시장 2035년 2522억弗 규모로 켑~ 2023년 1750억弗서 2024~2035년 연평균 3.1% 확대

세계 치즈 시장이 2024~2035년 기간 동안 연평균 3.1%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에 175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한 이 시장이 오는 2035년에 이르면 2522억 달러 볼륨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델라웨어주 월밍턴에 소재한 시장 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는 4월 28일 공개한 '원료별, 제품별, 유통경로별 치즈시장: 글로벌 기회분석 및 2024~2035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즈시장은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가운데 갈수록 볼륨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각국 외식업계 경영자들이다. 레스토랑, 카페, 패스트푸드점 및 케이터링 사업 등에서 취급하는 메뉴 가운데 상당수가 치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제품별로 보면 지난 2023년 현재 체다 치즈가 최대의 마켓셰어를 점유한 가운데 모짜렐라 치즈가 뒤를 이으면서 글로벌 치즈 시장에서 이들이 3분의 1 안팎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체다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가 오는 2035년까지도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단했다. 유통경로별로 보면 지난 2023년 현재 B2B 부문이 외식업계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치즈시장에서 최대의 매출 창출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볼 때 북미시장은 치즈시장에서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시장과 관련, 보고서는 오는 2035년까지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성장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 원료 포커스

## 불안 쫓고 수면 개선하는 카바

남태평양의 전통 의식에 사용, 간 독성 주의해야

카바(Piper methysticum)는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 남태평양 원산의 식물이다.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 남태평양에서는 제사용으로 수백 년간 사용해 왔다. 주로 뿌리를 갈아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후 이를 물과 섞어 거른 음료를 마셨다. 근래에는 카바의 이완, 스트레스 경감 기능이 알려져 점점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카바 뿌리에는 카발락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말린 뿌리에는 최대 20% 가까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바의 진정 작용은 카발락톤 성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카발락톤 성분에 불안 완화, 신경 손상 보호, 통증 경감, 암 위험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바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불안증 완화다. 카발락톤이 항불안 효과를 나타내는 명확한 기전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가바(GABA)의 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16년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PLOs One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카바 추출물의 A형 가바 수용체를 강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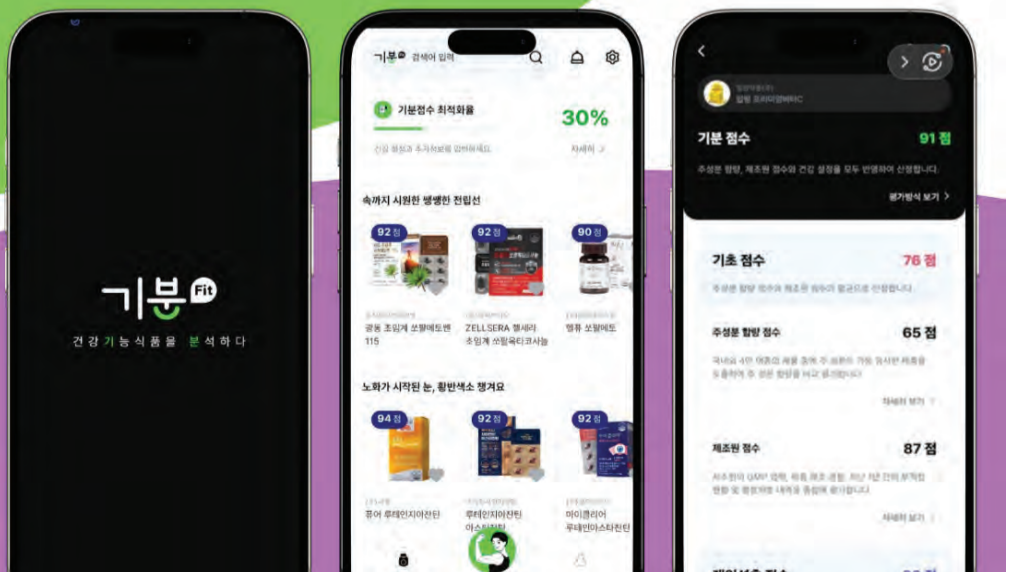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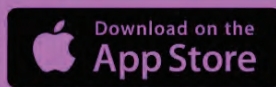
카바의 항불안 기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도 많다. 영국 엑서터 대학 연구팀이 수행한 메타 연구를 보면 카바 추출물이 불안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법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총 645명의 참가자가 포함된 11건의 임상을 종합 분석한 결과 카바 추출물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불안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건강기능식품 품질은 좋을까? 내용엔 맞을까?

주요 성분 함량과  
제조사 생산 경험  
체질, 선호 적합도 까지

기분 점수 확인하면 그걸로 끝

www.keyboon.co.kr



# 음료·젤리, 日 전식시장 최고 인기 제형

## 포장 기술 발달하며 다양한 음료 제형 선보여

일본 건강식품 시장의 최고 인기 제형으로 음료의 인기가 탄탄하다. 지난해 말 일본 건강산업속보의 신제품 분석 조사 결과에서도 음료는 단연 1위 제형으로 나타났다. 기능성표시식품의 상당수가 음료 제형으로 출시되는 상황이고, 올해 역시 상당히 많은 신제품이 음료 타입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음료 제형 제품의 성장세는 포장 기술의 발달과 연관된다. 전통적인 유리병, 페트병 포장에서 벗어나 스퀘어 파우치, T 파우치, 스마트팩, 알루미늄 파우치, 종이 캔, 카드형 액체 파우치 등이 도입되면서 선택의 폭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음료 제품 전성시

대가 열린 셈이다. 음료 제형의 입지가 굳건한 가운데, 빠르게 치고 나오는 제형으로 젤리가 주목 받는다. 기능성표시식품의 제형으로 젤리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특히 화장품 업체들이 건강식품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용 젤리를 앞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근래 몇 년간 일본 건강식품 시장의 특징은 화장품 업체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여파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화장품 업체들의 재무 상태가 개선됐고,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면서 신사업으로 건강식품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 이

때 뷰티 드링크나 스틱 젤리가 1순위 고려 대상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스틱 젤리는 휴대가 간편하고 화장품과 연계 판매도 쉬워 화장품 업체들에 가장 인기 있는 제형이 됐다.

음료나 젤리로 생산되는 제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소재는 콜라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건강산업신문이 2~3월 음료와 젤리를 생산하는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콜라겐은 미용 식품의 대

표 소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 드링크나 스틱 젤리 제품에 적용하기도 쉽다. 2위는 태반(플라센타)이 차지했으며, 3위는 유산균으로 드러났다.

기능성별로 보면 피부 건강, 미용 관련 제품 발주가 가장 많았다. 2위는 자양 강장, 3위는 피로 해소, 4위는 긴장 완화 및 수면 건강이 차지했다. 현재 일본 건강식품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 약업닷컴에서 뉴트라덱스 리포트를 다운로드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호스피탈리티 업종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 美 외식·숙박업계 퇴사율 업종별 최고... 민간 부문 평균치 2배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산업은 호텔, 레스토랑, 관광업소, 카지노 등에서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편안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식음료와 잡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고객이 머무는 동안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도록 정성을 다해 접대하는 것이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핵심.

그런데 이 같은 업종 자체의 남다른 특성 때문일까? 미국에서 호스피탈리티 산업 종사자들의 퇴사율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뉴욕에 소재한 호스피탈리티 산업 특화 구인구직 및 채용 플랫폼 기업 오이스터링크(OysterLink)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자료를 분석한 후 도출된 ‘채용공고 및 노동이직률 조사 자료’(JOLTS)를 5월7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외식·숙박업종의 퇴사율이 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통계국이 조사한 다른 어떤 업종보다 높은 수치를 내보인 데다 민간 부문의 평균 퇴사율 2.2%를 2배 가까이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요해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호스피탈리티 업계 퇴사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케이스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퇴사자들 가운데 절반이 4명당 3명꼴로 자발적인 퇴사자였다.

한편 호스피탈리티업종의 3월 채용률을 보면 다른 어떤 업종보다 높게 나타나 높은 퇴사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했다. 호스피탈리티업계의 경영자들이 상시 결원 보충을 통해 공격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원료 포커스

## 월경전증후군 증상 완화하는 캐모마일

### 항염, 진정, 항불안 효과 나타내 증상 완화에 도움

카밀레, 카모밀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캐모마일은 꽤 오랜 기간 식품, 음료, 화장품 등에 활용된 식물이다.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캐모마일은 크게 저면 캐모마일과 로만 캐모마일로 나뉜다. 이 중 저면 캐모마일이 더 빈번하게 활용되는 편이다. 전통적으로 캐모마일은 맥주를 만들 때 향신료로 활용됐다. 쓴맛과 독특한 향을 주는 용도로 캐모마일이 주목받았다.

캐모마일은 상당히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성분들 덕분에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 다양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월경전증후군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어 이 시기의 여성들이 많이 활용한다. 2019년 이란 사히드 사도위 대학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캐모마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이

1990~2019년 출판된 27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캐모마일이 항염증, 진정 효과, 항불안 효과 등을 발휘해 월경전증후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모마일의 진정 작용은 불안장애를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베트남 톤독탕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분석 연구를 보면 불안장애 증상과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혈당조절 기능도 주목받는다. 2020년 이란 타브리즈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문헌 연구 논문을 보면 캐모마일의 혈당조절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팀이 208편의 문헌을 연구해 정리한 결과 캐모마일이 혈당과 지질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ne-Stop Total CRO Service**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 CRO / RA 임상시험수탁 전문

# Oatc CRO CENTER

**Service Range ▼▼**

- ◎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대행
- ◎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대행
- ◎ RA 인허가 대행
- ◎ 식품·식품첨가물 한시적 승인 대행
- ◎ 피부·모발 건강기능식품 평가
- ◎ 건강기능식품 시험·검사



(주)오에이티씨 Tel. 070-4044-7043 E-mail. cro@oatc.co.kr

OATC CRO센터 | OATC 피부임상시험센터 | OATC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Brochure



Homepage



### 심창구 교수의 '약창춘추' 443

## 66년 만에 4·19 혁명 유공자로 선정된 김한주 약사

지난 4월 19일 전후, 제주에 사는 김한주 선배(서울대 약대 15회 졸업)로부터 두 차례의 전화를 받았다. 본인이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 혁명 66주년 기념식에서 유공자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서울대 약학박물관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였다.

이 기념식에서 김한주 선배(제주 4·19 기념회장)를 포함한 5인이 4·19 혁명 유공자로 선정된 70명 중 주요 인물로 선정되어 직접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포장(사진 참조)을 받았다.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의 4월 16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한주 선배는 1960년 당시 서울대학교 약학과 4학년에

재학 중 동기와 후배들을 이끌고 시위에 나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이상 약사공론 2026.4.27. 21면 기사 참조).

돌아보면 4·19 혁명 다음 날인 1960년 4월 20일, 동아일보 석간에 19일 오전 백색 가운을 입고 시위하는 서울대생들의 사진과 함께 '백색 가운을 입고 데모하는 의대생들'이라는 설명이 붙은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나는 이 기사가 오보라는 사실을 선배님들의 전언(傳言)을 통해 알게 되었다. 즉, 그들은 의대생이 아니라 약대생들(1957~1960년 입학생, 15~18회 졸업생)이었던 것이다.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잘못을 바로 잡으려 했다. 감사하게도 김병년 선배(17회, 당시 2학년)는 동아일보로부터 시위 사진 원본을 구해 주었고, 홍청일·박정식 선배(이상 15회)는 사진 속 인물 하나하나에 실명(實名)을 붙여 주었다. 이로써 사진 속 인물들이 약대생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었다.

이제는 동아일보의 오보에 대한 정정

기사를 받아내는 일만 남아 있었다. 마침 서울대 약학역사관장이던 박정일 교수가 동아일보 김동혁 기사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박정식·김한주 선배의 인터뷰를 부탁하였다.

드디어 2017년 4월 13일, 약학역사관 자료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두 선배의 준비는 비장하였다. 특히 제주에 사는 김한주 선배는 '민주혁명의 기록'(1960년 6월, 동아일보사)과 『월간 사상계』(1960년 6월호) 부록 「피의 화요일」 화보 등을 들고 상경했다.



그리고 그 기사는 고맙게도 2017년 4월 19일자 동아일보 A12면에 '4·19 시위 선두에 선 건 의대생 아닌 약대생들'

이라는 기사를 내주었다. '서울대 약학과 70여 명이 경무대 철문 앞까지 대열 이끌어'라는 부제도 붙여 주었다.

무려 57년 만의 정정 기사였다. 감격이었다. 4·19 시위에 참여했던 서울대 약대 선배들은 물론 나와 같은 약학사 연구자들의 숙원이 풀린 순간이었다. 나는 즉각 이 내용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백년사』(2016) 수정판에 실었고, 『약창춘추 223』(2017년 5월 10일자 약업신문)에도 소개하였다.

보훈부는 아마 동아일보의 그 정정 기사와 『백년사』 등을 보고 약학역사관의 협조를 얻어 김한주 선배와 연락을 취한 듯하다. 김 선배는 4·19 시위 중 경무대 앞에서 맹장이 터지는 부상을 입어 45일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간호사(현 90세)의 증언으로 이 사실을 입증받아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상의 과정에서 작은 돌 하나를 놓을 수 있었음에 큰 보람을 느낀다. 끝으로 김한주 선배를 비롯해 4·19에 참여한 약대 선배님들의 용기와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 칼럼

## 심연와 변호사의 법률민원상담 <10>

###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최근 "대구가정법원 2023드합2113(본소) 이혼 등, 2023드합2120(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은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어 주목할 만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이혼 시 '유책(有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

우리 민법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아내(원고)는 남편과 별거 중 다른 남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본소)를 기각하고, 남편(피고)의 이혼 청구(반소)를 인용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위자료)과 재산 형성의 기여(재산분할)는 별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잘못한 배우자는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위자료'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유책 여부보다는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16년간의 혼인 기간,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하고 남편의 카페 운영을 도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45%, 남편 55%'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3억 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재산분할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입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직접·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 명의의 여러 부동산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부동산들이 남편이 혼인 전 취득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그 부동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동산들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양육비는 부모 공동의 의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며, 통상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



심연와 변호사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후 현재 법무법인(유한)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비양육친이 된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나이, 직업과 소득, 재산과 생활 능력,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마무리

이처럼 이혼 소송은 여러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보장되며, 반대로 비양육친이 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계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ORUM

# AR1001, 9월 톱라인 공개 카운트다운...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시험대

## 글로벌 환자 1535명 등록 완료... 데이터 락·코드 브레이킹 준비

국내 바이오벤처가 직접 수행한 글로벌 알츠하이머병 임상 3상 결과가 곧 공개될 전망이다.

아리바이오는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 발표를 올해 9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환자 등록이 모두 완료된 가운데 현재 마지막 환자 방문과 데이터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후 데이터 락(lock)과 코드 브레이킹(code breaking)을 거쳐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리바이오는 18일 'AR1001 알츠하이머 치료제 글로벌 기술이전'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현황과 향후 상업화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재준 대표와 이병건 특별고문, 글로벌 임상 3상 한국 총괄책임자(CI)인 김상운 교수, 미국 지사장인 Fred Kim이 참석해 임상 개발 상황과 글로벌 전략을 설명했다.

아리바이오는 AR1001을 통해 국내 바이오벤처 최초 수준의 '직접 글로벌 임상 3상 완주 및 상업화' 모델 구축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재준 대표는 "아리바이오는 지난 16년 동안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돌려드리겠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왔다"며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고 9월 톱라인 발표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공 모델처럼 여겨져 왔지만, 글로벌 임상 3상을 직접 수행하고 상업화까지 주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약 주권을 가질 수 있다"며 "AR1001 프로젝트는 한국 바이오산업이 직접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AR1001 글로벌 임상 3상은 사실



(왼쪽부터) 아리바이오 프레드 김 미국지사장, 이병건 특별 고문, 정재준 대표이사(공동), 성수현 대표이사(공동).



정재준 대표이사.

### 중국 푸싱과 최대 7조원 규모 계약... NDA 신청까지 직접 주도 "한국 바이오 직접 글로벌 3상 완주 모델 만들 것"

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김상운 교수에 따르면 총 1535명의 글로벌 환자 등록이 모두 완료됐으며, 마지막 환자의 최종 방문(LPLV)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데이터 클리닝과 데이터 락 작업을 거친 뒤 블라인드 해제 과정을 통해 최종 톱라인 결과가 도출된다.

김 교수는 "현재는 누가 진약군이고 누가 위약군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확인된 전체 데이터 흐름은 임상 2상에서 관찰됐던 결과를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글로벌 연구에서는 중간 분석을 통해 연구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현재 데이터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연구진 입장에서는 임상 3상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R1001이 주목받는 이유는 '먹는 알츠하이머 질병수정치료제(DMT)'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항체 치료제를 중심으로 재편되

고 있지만, MRI 모니터링이 필요한 AR1A 부작용과 반복 주사 투여 부담, 고가 치료비 등이 한계로 꼽히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 항체 치료제는 질병 진행 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와 투약 편의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AR1001이 성공할 경우 먹는 약이면서도 질병 진행 억제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바이오는 최근 푸싱제약(Fosun Pharma)과 총 7조원(마일스톤 최대) 규모의 글로벌 기술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계약에는 개발·허가·판매 마일스톤이 포함되며, NDA 신청까지는 아리바이오가 직접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옵션 계약금 900억원과 임상 3상 톱라인 이후 1200억원, FDA 허가 시 1500억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최대 20% 수준의 로열티도 별도로 설정됐다.

Fred Kim 미국 지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니라 글로벌 상업화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며 "푸싱은 글로벌 빅파마 도약

을 목표로 하고 있고, AR1001은 그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리바이오는 CRO 의존형 임상 운영이 아니라 자체 글로벌 임상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직접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다"며 "NDA 신청까지 미국 지사가 개발 주도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건 특별고문은 "결국 중요한 것은 편견이 아니라 데이터"라며 "오는 9월 발표될 글로벌 임상 3상 톱라인 결과가 AR1001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역시 이번 톱라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성공할 경우 국내 바이오벤처가 직접 글로벌 임상 3상을 완주하고 상업화 단계까지 진입한 첫 사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구용 알츠하이머 질병수정치료제 시장 개화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최윤수 기자 jiyisc0229@yakup.com |



### 동성제약, 법정관리 종결... 경영 정상화 본격화 "제약·뷰티·헬스케어 시너지 통해 미래 성장동력 강화"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가 5월 15일 동성제약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동성제약은 11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경영 정상화에 본격 나서게 됐다.

동성제약은 우선적으로 주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헬스케어·뷰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제약·염모제·더마·헤어케어 등의

사업 영역에서 태광그룹 계열사와 시너지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애경산업의 뷰티 유통망에 동성제약 연구개발 역량과 헤어케어 전문성을 더해 '뷰티·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업을 확대한다. 흡소퐁·미디어커머스·호텔 등 태광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판매 채널도 마케팅 인프라로 활용하게 된다.

동성제약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

대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도 적극 나선 방침이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신약 '포노젠'은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며, 태광그룹 계열사 편입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 개발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동성제약은 데이터와 시스템 기반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제품·유통 전략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피코스텍 등을 활용한 주요 제품의 외주(ODM·OEM) 전환을 검토하고, 생산 라인 최적화도 추진한다. 피코스텍은 태광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연합자산관리의 투자사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태광산업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경영 정상화 기반이 한층 탄탄해졌다"며 "뷰티·제약·헬스케어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중장기 성장동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

# PEOPLE & PLAZA

## 약업계 소식

### 대웅제약 턴 바이오 핵심 플랫폼 인수



대웅제약이 미국 바이오 기업 턴 바이오 테크놀로지스(Turn Biotechnologies) 핵심 자산 경매 낙찰을 통해 관련 기술 자산 및 권리를 확보하고, 노화 질환 치료제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

이번 자산 도입은 노화를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닌 조절 가능한 생물학적 과정으로 보고, 증상 완화를 넘어 질환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차세대 치료 전략 일환이다. 대웅제약은 이를 통해 그룹 차원 노화 질환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노화 치료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턴 바이오 핵심 기술인 ERA 플랫폼은 노화된 세포에 리프로그래밍 인자를 mRNA 형태로 전달해 세포 고유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능을 보다 젊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부분 리프로그래밍(Partial Reprogramming)' 기술이다. 기존의 완전 리프로그래밍이 세포 정체성 손실 등 한계를 갖는 것과 달리, 세포의 고유 특성은 유지하면서 기능 저하만 선택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노화 질환 치료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이번 자산 도입은 한올바이오파마가 턴 바이오와 공동연구를 통해 축적해온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WHO PQ(Prequalification, 품질 인증) 제품에 대해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현장 실사를 서면 심사(Desk Assessment) 방식

으로 대체해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GC녹십자는 지난해 9월 실사 신청 이후 현장 방문 없이 서면 평가를 통해 독감 백신 '지씨플루'와 수두백신 '배리셀라' WHO GMP 적합성 인증을 획득했다. 서면 심사만으로 WHO GMP 기준 충족을 인정받은 국내 첫 사례로, 대면 실사 대비 50% 이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WHO Listed Authority) 등재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 2025년 전 세계 규제기관 중 최초로 WHO WLA의 의약품·백신 분야 전(全) 기능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수준의 규제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약품·백신의 국제 조달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들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휴온스

휴온스랩 합병... 바이오·R&D 경쟁력 강화



휴온스가 18일 이사회를 열고 휴온스글로벌 자회사인 휴온스랩과 합병 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합병은 휴온스가 휴온스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사 합병 비율은 1대 0.4256893이다. 휴온스는 오는 7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합병기일은 8월 18일로 예정됐다.

회사는 합병을 통해 기존 합성약품 후보물질 중심 연구개발 체계에 휴온스랩의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휴온스랩은 인간 유래 하일루로니다제를 활용한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 '하이디퓨즈(HyDIFUZE)'를 보유하고 있다.

휴온스는 합병을 계기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획득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약가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 차바이오텍

연세대 바이오헬스기술지주와 스타트업 육성

차바이오텍이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



술지주회사와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기술 사업화, 공동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포함한 협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바이오 스타트업 집적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공동 기술 사업화 트랙 운영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글로벌 파트너링 데이 공동 개최 △해외 혁신 클러스터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차바이오텍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Cell Gene Bioplatfrom)'에 글로벌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허브인 'K-Bio-CIC 오픈이노베이션센터(이하 K-Bio CIC)'를 설립한다. 6만6115㎡(2만평) 규모 CGB 가운데 1만㎡(3천평)을 할애해 2026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유한양행

딘시, 베트남 메가 인플루언서 보하린과 협업



유한양행 뷰티 브랜드 딘시(dinsee)가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약 222만 명, 틱톡 팔로워 570만 명을 보유한 베트남 메가 인플루언서 보하린의 방문을 계기로 브랜드 협업을 확대하고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소비자 점점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딘시 브랜드 철학과 제품 경쟁력을 현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풀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보하린은 딘시 주요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맞춤형 콘텐츠 촬영에 참여했으며, 해당 콘텐츠는 베트남 등 주요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딘시는 프리미엄 자연 유래 원료와 제약 기업의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비건'을 지향하는 브랜드다. 해발 3000m 고산지대 자생 노련꽃 추출물과 제주 화산섬 자생 제주꽃추출물 등 프리미엄 비건 원료를 적용했다. 대표 제품인 '딘시 프리미엄 비건 톤업 선크림'은 동물실험 및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프랑스 EVE VEGAN 인증과 영국 Vegan Society 인증을 획득했다.

### 롯데바이오로지스

'오티모'와 항체의약품 추가 수주 계약



LOTTE BIOLOGICS

롯데바이오로지스가 오티모 파마(OTTIMO Pharma)와 항체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롯데바이오로지스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에서 오티모 파마의 항체신약 '잔키스 토미그(Jankistomig)' 원료의약품(DS)을 생산한다.

양사는 지난해 6월에도 항체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계약에는 원료의약품 생산뿐 아니라 공정개발 업무도 포함됐다. 단순 생산을 넘어 개발 단계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이 오티모 파마와의 협력 관계를 장기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임상 개발과 상업화 물량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롯데바이오로지스는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를 기반으로 세포주 개발부터 대규모 위탁생산까지 CDMO(위탁개발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을 통해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듀얼 사이트(Dual Site)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The Yakup

1954년 3월 29일 창간  
1964년 1월 1일 등록번호 서울다 06427호(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함태원 공동대표이사 함태원 CEO·함성원 CCO  
통합미디어본부장 상무이사 김혜림 주간 이종운 편집국장 이권구 영업마케팅이사 김성준  
065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인 터 넷 www.yakup.com/www.yakup.co.kr  
E-mail webmaster@yakup.com/webmaster@yakup.co.kr  
대표전화 02-3270-0114 기사제보 02-3270-0114 FAX 02-3270-0189 광고문의 02-3270-0114  
구독료 월 7천원 구독신청 02-3270-0115  
출판국 TEL 02-3270-0116 FAX 02-3270-0139  
약업신문 전국 지사·지국 안내 전국 02-3270-0115  
경남 055-757-1695 대구·경북 053-754-3329

### 회수문

벤조피렌 부적합으로 회수합니다.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현진오매, 24117-01, 2024.1.11.  
현진초과, 25183-01, 2025.8.1.  
\*회수기간 : 2026.6.19. 까지  
\*회수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장로 62  
(주)현진제약 T.02)967-1277 F.02)967-1279

### 회수문

순도시험 4)벤조피렌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합니다.  
\*제품명 : 엔텔허브오매  
\*회수기간 : 2026.05.21. ~ 2026.06.19.  
\*제조번호 : ETC24961-1  
\*사용기한 : 2028.02.24  
\*회수처 : 경기도 양주시 천보산로 100번길 56(회암동)  
(주)엔텔허브 T.031)861-8295 F.031)861-7654

동화약품



대한민국 잇몸약(藥) 판매 1위

잇치<sup>®</sup>는 생활이다

일반의약품

※ 2024년 IQVIA 1Q MAT 데이터 기준 1위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 심의필: 2024-1738-001603) 효능·효과 치은염·치조농루에 의한 여러 증상 (잇몸의 발적·부기·출혈·고름 등)의 완화



# 콘드로이틴. 약으로. 약으로. 약으로.



광고모델 가수 이찬원



## 관절치료, 흡수빠른 겔타임으로!

의약품 콘드로이틴  
**맥스콘드로이틴**  
**1200** 경구용겔(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국내 최대  
1회 함량\*



흡수 빠른  
겔타임

1일1포



하루 한포  
간편한 복용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광고 심의말: 2024-1746-003308 ]  
\*1회 복용 기준 1,200mg [ 2024년 3월 7일 기준 ] 출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